소년단

1964.6

조선 소년단원의 영예 빛내며

영웅의 나라, 천리마 조선의 아들딸된 영예와 자랑을 빛내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씩씩하게 배우며 준비하는 우리들!

우리들의 앞길은 얼마나 넓고 보람찬가!

당과 원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건 아끼지 않는다.

이 행복, 이 기쁨 가슴 깊이 간직하고 우리는 더욱 열심히 배우고 소년단 생활을 더욱 잘하여 이 은혜에 보답할 굳은 결의를 다진다.

우리는 당의 아들딸로 더욱 열심히 배우며 준비 하겠습니다.

(만경대에서 열린 조선 소년단 평양시 련합 단체 대회에서 씩씩하게 주석단 앞을 지나는 소년단 사열식 대렬)

원수님의 참된 아들딸로 더욱 씩씩히 배우며 준비할 결의도 새롭게 처음으로 붉은 넥타이를 매는 소년단원들.

(만경대에서)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배우며 ...

(전국 모범 소년단 열성자 대회 ...
김 일성 원수님의 생가를 방문 ...)

우리도 영웅 형님처럼 용감 하리라.

(전국 모범 소년단 열성자 대회에 참가한 열성자들은 김기우 2중 영웅 형님을 만났다)

전국 모범 소년단 열성자 대회에 가 한 이 영예와 기쁨을 간직하고 학 소 년단 생활에서 더욱 모범을 보이자 열 성자들은 서로 이야기한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중앙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6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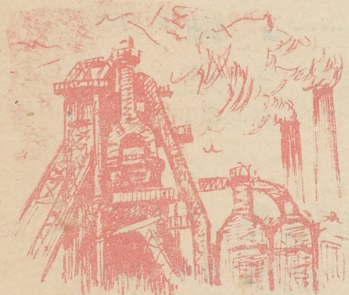
차 례

표지 1 면—즐거운 원족의 하루

(시)

언제나 준비하자!

—조선 소년단 창립 18 주년에—

김순석

하늘을 쳐다보아라
맑고 푸른 저 하늘'가에
천리마 나래 펴고 달음쳐 간다.
—어서 타라, 나의 용감한 기수가 되라!
손질하며 우리를 부르고 있다.

구름을 꿰뚫은듯 허리에 감은듯
13 층 높이 솟은 학생 소년 궁전은
—어서 오라, 너희들은 나의 주인,
방마다 문을 열고 부르고 있다.

거리와 들판을 내다보아라!
제일 크고 큰 집은 우리의 학교,
제일 넓고 넓은 터전은 우리의 운동장,
행복하게 배우며 씩씩하게 자라는

조선의 소년단원
160만 동무들…

부르는 노래마다 행복의 노래
부르는 노래마다 기쁨의 노래

아! 이 세상에 나라는 많고
이 세상에 어린이들 많고 많아도
우리보다 더 행복한 어린이들
더는 몰라라.

하늘도 땅도 출렁이는 바다도
모두가 손'짓하며 말을 하는듯…
—미래는 너희들의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너희들께 맡겼다.

아! 세상에 소리 높여 자랑을 하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것
우리들을 위하여 갖춰 주는 내나라,
가장 훌륭한 꿈과 앞날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주는 내나라.

당의 품'속에 자라는 이 기쁨을
원수님의 품'속에 자라는 이 기쁨을
무엇으로 보답하나
무엇으로 보답하나.

동무들아 나아가자!
하나로 뭉쳐진 꽃다발로
많고 많은 160만
모두가 한결같이 당을 따라 앞으로.

지, 덕, 체 한몸에 지닌
조선의 소년단원답게
사. 로. 청 형님들의 뒤를 따라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자라자!

아! 당을 위해 조국 위해
몸 바쳐 싸우는
조선 로동당원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준비하며 커가자.

아동단원들처럼 례절을 지키십시오

류 명옥

예로부터 조선 인민은 례절이 바르며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살아 왔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동방에서 례의 도덕이 제일 밝은 나라라고 불러 왔습니다.

이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운 조선 인민의 례의 도덕은 1930 년대 항일 유격대원들 속에서 공산주의 도덕으로 더욱 꽃피고 발전하였습니다.

유격대원들은 나라를 열렬히 사랑하였고 집단과 동무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례의 도덕을 지키는 데서도 모범이 되였습니다. 그 때 우리 아동단원들도 유격대원 아저씨들에게서 아름다운 도덕 품성을 배우며 본받았습니다.

아동단의 모든 일은 어려서부터 참되게 자라서 참된 혁명 투사가 되는 것이였습니다. 혁명 투사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원쑤와의 싸움에서 용감할 뿐만 아니라 례의 도덕에서도 언제나 모범이 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단원들은 아동단 조직에서 꾸준히 배우며 유격대 아저씨들을 도와 원쑤와의 싸움에서 용감하였고 례의 도덕을 지키기에도 힘썼습니다.

인사는 아동단의 례절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하였습니다. 아동단원들은 아침 일찍 일어 나면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하였고 저녁이면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십시오.》 라고 인사하였습니다. 잠간 집을 떠날 때에도 부모님들에게 어디에 갔다 오겠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아동단원들은 웃사람을 언제 어디서 몇 번을 만나든지 만날 때마다 꼭꼭 인사를 하였습니다.

아동단원들은 동무들끼리 만나도 먼저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동단원들이 인사를 잘 지켰기 때문에 동무들 사이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였습니다.

아동단원들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 말보다 훌륭한 우리 나라 말을 아름답게 썼습니다. 말의 례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표준말을 쓰는 일이였습니다. 웃사람들의 물음에는 항상 겸손하게 경어로 대답하였습니다. 아동단원들은 동무들 사이에도 항상 경어와 표준말을 썼습니다.

아동단원들은 로인과 웃어른들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 행동으로 존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로인들과 웃어른들에게 인사를 지키는 것은 물론 웃어른들이 말씀하실 때에는 몸을 바로하고 똑똑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부탁을 받거나 심부름을 받았을 때는 공손히 하겠다고 대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김 없이 수행하고 그 일의 결말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아동단원들은 로인들을 존경하였습니다.

만약 길'가에서 길을 잃은 로인을 만났을 때에는 꼭 로인이 찾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군 하였습니다. 그 때 정말 어떤 동무들은 로인들과 웃어른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어른들의 그림자까지도 밟는 것을 삼가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아동단에서 례절에 대한 토론회를 할 때에는 별의별 이야기들이 나오군 했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길을 가다가 실수해서 로인들이나 어른들의 앞길을 가로 질렀다든가 미처 인사 못 하고 지나쳤을 때에는 그 무슨 일이나 저지른 것 같아서 하루종일 기분이 언짢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동단원들이 이처럼 겸손하고 례절 바르고 웃어른들을 존경한 것은 누구에게 일시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였습니다. 오직 어려서부터 례의 도덕을 잘 지켜야 유격대 아저씨들처럼 훌륭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 때 우리가 생활하던 길림성 요화현 소나허 마을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단원은 몇 명 밖에 없었습니다. 아동단에는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며 혁명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바칠 것을 약속한 5~6 명의 아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동단에는 영복이라는 동무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그와 함께 산으로 나무하러 가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마침 마을 어구에서 돌'배나무'집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깍듯이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오냐, 나무를 하러 가는구나.》 하시더니 《오늘 영복이는 내게 다섯 번째나 인사를 하는구나, 참 기특한 녀석이지…》하며 칭찬을 하시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처럼 감탄한 영복동무는 어떤 아동단원이였겠습니까. 최영복이는 열 세 살 난 아동단원이였습니다. 영복이는 아동단 조직에서 주는 혁명 임무를 잘 해낼 뿐만 아니라 참으로 례절 바르고 웃어른을 존경할 줄 아는 소년이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어른들은 영복이를 모두 자기 집 아이처럼 귀엽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영복이는 조직에서 주는 혁명 임무를 받고 소나허 마을에서 약 30 리 가량 떨어진 실전재 마을로 비밀 련락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중요한 혁명 임무를 받고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을 조직에서 들은 어머니는 멀쑥한 풀죽으로 아침을 에운 영복이를 위해 송기떡 하나를 조끼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전 일 없어요. 동생들에게나 주십시오.》 하며 영복이는 아예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영복의 손에 송기떡을 쥐여 주었습니다.

영복이는 고개를 넘고 개울을 지나 실전재라는 마을 대장'간집 아저씨를 찾아 갔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는 삼인퉁에 있는 대장'간집으로 새 풀무를 가지러 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복이는 거저 되돌아 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약 30 리나 되는 삼인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 날 밤 끝내 아저씨에게 통신 쪽지를 전하였습니다. 무사히 혁명 임무를 마치고 돌아 오는 영복이는 나래라도 돋힌듯 기뻤습니다.

원래 마당발인 영복이는 100여 리나 걷고 나니 발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사위는 어두워졌습니다. 배도 고파 왔습니다. 문득 영복이는 어머니가 주던 송기떡 생각이 나서 조끼 주머니에 손이 갔습니다.

주먹만한 송기떡을 꺼낸 영복이는 송기떡도 배불리 먹지 못해 늘 어머니를 졸라대던 어린 동생들이 생각났습니다. 영복이는 집에 가서 세 동생들과 나누어 먹으리라 생각하고 송기떡을 다시 조끼 주머

니에 넣었습니다.

이 때였습니다. 갈림'길 쪽에서 늙은 할머니 한 분이 짐을 이고 맥없이 걸어 오고 있었습니다.

《애야, 여기서 삼인퉁이 아직 멀었느냐?》

《40 리는 실히 됩니다.》

영복의 말을 듣자 할머니는

《상기두 40 리란 말이지?》하고 길'바닥에 짐을 내동댕이치듯 내려 놓고 풀썩 앉으시더니

《에그, 낯 선 길을 공연히 떠났군, 이 일을 어찌노…》하시며 갈 길이 아득해서인지 한숨까지 꺼지게 쉬시는 것이였습니다. 영복이가 바라 보니 할머니는 갈 길은 멀었지만 그보다 더 배가 고프신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영복이는 할머니가 몹시 불쌍하게 생각되였습니다.

《할머니, 이걸 좀 잡수세요.》

영복이는 할머니에게 송기떡을 올렸습니다. 송기(소나무 껍질)에다 몇 알 안 되는 귀밀알을 넣고 만든 떡이였으나 할머니는 맛 있게 잡수셨습니다. 영복이는 자기가 그냥 혼자만 집으로 돌아 간다면 할머니가 낯 선 곳에서 밤새껏 고생하실가 보아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삼인퉁에 살고 있어요.》하며 할머니의 보'짐을 들고 힘 있게 일어섰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도 기뻐 뒤따라 일어 서시였습니다.

영복이가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돌아 오니 그 때는 벌써 날이 훤히 밝은 때였습니다.

영복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동단원들이 어떻게 례절이 바르고 웃어른을 존경했는가 하는 한 가지 작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공산주의 사회는 지식 있고 훌륭한 공산주의 도덕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사회입니다. 동무들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의 뒤를 이어 그런 사회—공산주의 사회를 우리 나라에 건설할 사람들이며 그 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모든 것이 비할 바 없이 발전한 가장 문명한 사회입니다.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는 지식이 많고 기술이 있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가진 쓸모 있는 일'군들을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조국의 장래는 여러 소년단원 동무들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 동무들을 조국의 희망이며 꽃봉오리라고 부릅니다.

동무들은 자기 조직에 충실하고 학습도 잘 하면서 예로부터 내려 오는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례의 도덕과 풍습을 살려 례절이 바르고 웃어른을 존경할 줄 아는 공산주의 건설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훌륭한 례의 도덕 품성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꾸준히 습관을 붙이며 교양을 쌓아야 합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아동단의 모범을 따라 례절이 바르고 웃어른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동무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대보 마을에 핀 붉은 꽃송이

—평양시 보통강 구역 대보 중학교 단 제 15 분단 (2 중 모범 분단) 6 반 반장 김 영애 동무에 대한 이야기—

본사 기자 연 일덕

그림 김 철수

지난 4월 10일부터 사흘 동안 평양 학생 소년 궁전에서 있은 전국 모범 소년단 열성자 대회 소식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회에서는 160만 소년단원들을 대표하여 각 곳에서 모여 온 모범 소년단원들이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 나는 가지가지 자랑찬 이야기들로 꽃을 피웠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대회에 모인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반 동무들을 친동생처럼 도와 주어 모두 모범 소년단원으로 이끌어 올린 영애 동무의 이야기는 더욱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정한 여섯 형제

1961년 영애가 반장으로 선거된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날이였습니다. 분단 위원회를 마치고 돌아 온 반장들은 반 사업 일지를 내놓고 반 모임을 준비하느라고 바삐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애는 반 일지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이고 서 있을 뿐이였습니다. (먼저 번에도 반 모임을 하려다가 반 동무들이 모이지 않아서 못 했는데 오늘도 또 모이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스러워서였습니다.

공부가 끝난 다음 그는 반 모임을 하겠으니 반 동무들에게 모두 남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애가 생각한 대로 또 순실이와 영숙이는 빨리 가서 집'일을 돌봐야 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6.6절 명절에 출연할 예술 체조 준비가 6 반이 제일 뒤떨어졌다고 분단 위원회에서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영애의 마음은 막 안타까왔습니다.

《너희들은 반 생활은 하지 않을테냐? 너희들 때문에…》 여느 때는 좀처럼 성을 내는 일이 없던 영애도 오늘은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얼굴이 빨개서 눈물이 글썽해지는 것이였습니다.

그들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니 영애는 공연히 짜증을 낸듯 싶었습니다. 이 날 반 모임에서 돌아 온 영애는 (아무래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부야…) 하는 생각이 들어 저녁 식사를 하고 순

실이네 집을 찾아 갔습니다.

그 때 순실이는 예술 체조에 들고 나갈 꽃다발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애는 그와 함께 꽃다발을 만들며 순실이네 집 사정을 알았습니다.

순실이는 전쟁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국놈들에게 빼앗기였습니다. 그 때부터 그는 오빠와 함께 친척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 오빠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오빠와 둘이서 살림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순실이는 식사며 집안의 모든 일을 돌보느라고 몹시 바빴습니다.

영애는 신원 중학교에 다니다가 전학해 온 지 얼마 안 되여 아직 이런 형편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영애는 순실이가 바빠서 미처 돌보지 못한 집안 살림도 거들어 주었습니다. 그 때부터 공부가 끝나면 순실이네 집에 가서 밥도 같이 짓고 빨래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습도 도왔습니다.

순실이가 제일 어려워 하는 지리 과목과 식물 과목을 더 많이 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실이가 지리와 식물 과목 학습에 재미를 붙이게 할가? 하고 생각던 끝에 하루는 짬짬이 수채화로 조선의 산맥을 그림으로 그려 놓고 해설해 주었습니다. 순실이는 얼마나 재미 있어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 때부터 영애는 지리와 식물 과목 학습을 도울 때면 그림을 그려 놓고 해설해 주군 했습니다. 그가 순실이를 위해 그린 그림을 모두 합하면 여든 여섯 장이나 되였습니다. 그는 순실이의 학습을 돕는 일이라면 그 어떤 수고이건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이면 순실이와 함께 공업 및 농업 전람관을 찾아 가 조선 지리에서 배운 우리 나라의 공장과 광산들의 모형을 직접 보기도 하고 식물원을 찾아 가 교과서에서 배운 식물들의 종류와 그의 특성들을 관찰하면서 배운 지식을 더욱 넓혀 나갔습니다.

영애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된 효선이와 춘실이도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 뒤떨어진 반 동무들을 스스로 도와 나섰습니다.

효선이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집안'일이며 동생들을 돌보느라고 애쓰는 영숙이를 도와 나섰고 춘실이는 공부를 잘못 하는 현숙이를 도와 나섰습니다.

친형제들처럼 서로 돕고 이끌어 나가는 이들은 학업 성적이 보통생이던 순실이, 영숙이, 현숙이를 모두 최우등생으로 이끌어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6 반은 학교에서 맨 먼저 100 % 최우등 반이 되였고 모범반이 되였습니다.

사랑의 힘

아침마다 동무들과 어깨 겯고 학교에 갈 때면 늘 어머니에게 업히여 학교에 오는 한 학생을 만나군 했습니다.

그 때마다 영애는 그것을 남의 일 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힘 드시겠어요. 그 애를 내려 놓으세요. 제가 업고 갈테니 돌아 가세요.》 영애는 늘 그 애를 업고 학교에 가군 했습니다.

그 애는 다른 반에 있는 상복이였습니다. 그는 전쟁 때 악독한 미국놈들의 폭격에 왼 발을 잃었고 아버지와 오빠는 전선에 나가서 미국놈들과 용감히 싸우다가 희생되였습니다. 그런데다 어머니 역시 놈들의 폭격에 상처를 입어 몸이 쇠약해져서 때때로 앓으시군 하는 것이였습니다.

이것을 안 영애는 단 지도원 선생님을 찾아 갔습니다. 《선생님! 상복이를 우리 반으로 보내 주세요. 오늘부터 상복이를 내가 맡아 돕겠어요…》

그리하여 영애네 반은 그 날부터 일곱 형제가 되였습니다. 반 동무들은 모두 미국놈들을 미워 하는 마음으로 상복이를 사랑하며 도와 나섰습니다.

아침이면 누가 먼저 상복이를 업고 학교에 가는가를 내기라도 하듯 앞을 다투어 나섰습니다.

그리고 반 동무들은 상복이네 집에 반실을 꾸리고 늘 상복이와 한 자리에서 반 사업을 의논했습니다. 일요일이면 반 동무들은 맛 있는 음식을 해 가지고 와서 상복이와 함께 산보도 갔습니다. 그가 보고 싶어 하던 동물원이며 식물원, 아름다운 모란봉을 구경시켰습니다.

영애는 상복이와 한 책상에 앉아 공부하면서 그의 학습을 도왔습니다.

상복이가 학습장과 연필을 살 때도 가까운 상점에서 살 수 있지만 영애는 그를 업고 아동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들어 하는 학습장을 골라 사 주었습니다.

1 년을 하루 같이 반 동무들의 지성이 깃든 보람이 있어 상복이는 하루의 결석도 없이 공부를 잘 하게 되였습니다. 그렇지만 반 동무들은 상복이를 그저 업고 다니며 공부를 도와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복이를 어떻게 하면 제 발로 걸어 다니게 할 수 없을가 하고 반 동무들과도 의논하고 집에 가면 늘 직장에 다니시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들과도 의논하였으며 마을 어른들에게도 물어 보았습니다. 반 동무들은 마침내 분단 위원회에 제기하여 분단 동무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편지를 함흥 의대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얼마 후 병원에서는 상복이를 데리고 오라는 회답이 왔습니다. 이 날 분단 동무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6 반 동무들과 함께 분단 동무들은 상복이네 집에 모여 밤 가는 줄 모르고 상복이의 떠날 차비를 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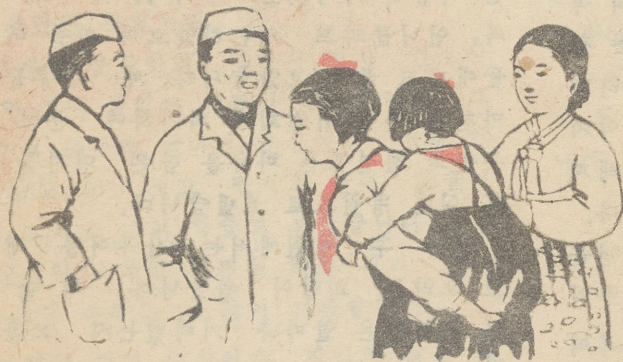
이튿날 영애는 상복이 어머니와 분단 지도원 김 순실 선생님과 함께 상복이를 업고 함흥으로 떠났습니다.

상복이를 업고 병원 문을 들어 서는 영애를 본 의사 선생님들은 그처럼 어린 몸으로서 동무를 지극히 사랑하여 수백리'길을 찾아 온 그의 불타는 마음에 감동되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 온 영애는 반 모임을 열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상복이가 빨리 나아 돌아 올 수 있게 더 잘 돕자고 의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효선이에게는 《소년단》, 《소년 신문》을 늘 우편으로 보내 주는 일, 춘실에게는 분단, 반에서 일어 나는 새 소식을 알려 주는 일, 현숙이와 영숙이, 영애에게는 상복이 어머니 일을 도와 드리는 일을 맡겼습니다.

상복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반 동무들은 그를 생각하여 반 사업을 더 열심히 해 나갔습니다.

6 반 동무들 뿐만 아니라 분단 전체 동무들이 상복이를 도와 나섰습니다. 새로 나온 재미 있는 책을 사서 보내 주고 단과 분단에서 일어 나는 새 소식들을 알려

주기도 했습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상복이가 그간 배우지 못 한 것을 학습장에다 깨끗이 정리해 두었다가 상복이가 돌아 오면 곧 그의 학습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 분단 동무들 속에서는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동무를 돕고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등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마침내 《모범 분단》의 영예를 쟁취했습니다.

여름 방학 간에 분단 위원장과 영애는 분단을 대표하여 상복이를 만나 보려고 함흥에 갔습니다.

상복이는 분단 동무들이 모두 《모범 분단》의 소년단원답게 분단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상복이에게 《모범 분단》 휘장을 달아 주면서 빨리 나아서 돌아 와 《2 중 모범 분단》의 영예를 지니도록 분단 사업을 더 잘 해 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상복이가 입원하여 다섯 달만에 제발로 걸어서 학교에 돌아 오는 날이였습니다.

이 때 학교의 전체 소년단원 동무들은 상복이를 둘러 싸고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즐겼습니다.

마을 아버지, 어머니들도 나오시여 동무들 속에 끼여 군중 무용을 추는 상복이를 보며 그처럼 동무를 위해 자기의 온갖 정성을 다 바친 마을 아이들과 상복이네 분단 아이들을 생각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서로 돕고 이끌어 나가는 6 반 동무들의 참된 마음은 《모범 분단》, 《모범 소년단》 칭호 쟁취 운동에 떨쳐 나선 학교의 모든 동무들에게 큰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 ×

토론을 끝마치면서 영애는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를 더 잘 실천하여 학교가 《모범 소년단》 단체의 영예를 지니도록 더 열심히 힘쓸 것을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대회장을 나서는 영애의 앞가슴에서는 붉은 넥타이가 저녁 노을에 비끼여 더욱 붉게붉게 타번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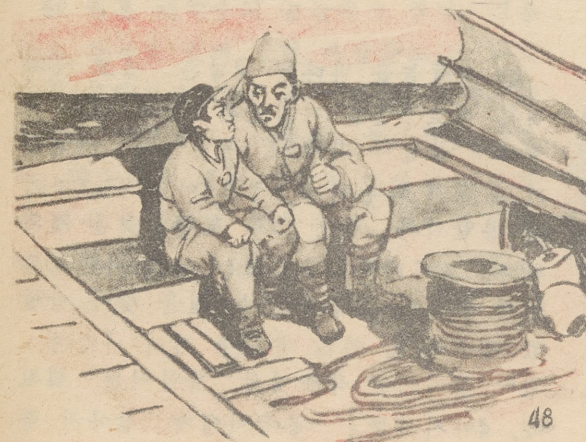
련재 그림

오누이 (제4회)

글—허 일 그림 맹 동원

㊻ 해가 저물어 포구로 돌아 갈 차비를 하던 어로공들은 그물이 째여진 것을 발견하고 놀랜다. 누가 찢었는가고 떠들썩한다. 이 때 봉일이가 감독놈이 찢었다는 것을 말한다. 어로공들은 감독놈이 벌금을 들씌우려고 한 짓임을 알고 분개한다.

㊼ 성호 아저씨와 어로공들은 감독놈에게 대든다. 그러나 감독놈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시침을 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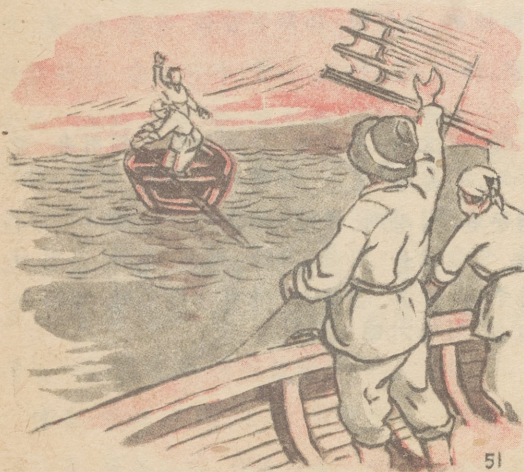
이 때 봉일이가 나서며 그의 행동을 폭로하고 증거물로 돈까지 내보인다. 감독놈은 하는 수 없이 너무 낡아서 새것으로 바꾸려고 찢어 버린 것이고 벌금은 안 받겠다고 둘러 맞춘다.

㊽ 성호 아저씨는 감독놈의 위협을 물리치고 옳은 일을 위해서 싸운 봉일이의 행동을 칭찬해 준다. 그리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은 힘을 모아 서로 도와 가면서 선주와 같은 놈들과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49

㊾ 감독놈은 자기의 꾀가 폭로된 것을 분통해 하면서 발생을 부리는 성호 아저씨를 죽이려고 생각한다. 그는 성호 아저씨를 만나자고 꾀여 낸 다음 갑자기 칼로 찌른다. 두 사람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싸운다.

50

㊿ 이윽고 성호 아저씨가 깔리워 위험하게 된다. 이를 발견한 봉일이는 옆에 놓인 쇠뭉치로 칼을 든 감독놈의 머리를 후려갈긴다. 감독놈은 그 자리에 쓰러진다.

51

(51) 감독놈을 바다에 처넣은 성호 아저씨와 어로공들은 자기들과 함께 왜놈 경찰에게 붙들려 가야 할 봉일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논한다. 성호 아저씨는 자기가 봉일이와 같이 멀리 떠날 것을 결의한다. 그리하여 봉일이는 성호 아저씨와 함께 부모의 원쑤를 갚는 길을 찾아 망망한 바다에 힘 있게 쪽배를 저어 나간다. 멀리 사라지는 쪽배에서 봉일이는 웨친다. 《아저씨들! 봉숙이에게 살아서 꼭 만나자고 전해 주세요.》 하고…

(52) 김 일성 원수님이 조직 지도하신 항일 유격대는 15 년 여에 걸치는 긴 세월을 모진 고난을 이겨 내며 일본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들을 무찌르는 영용한 무장 투쟁을 전개하시였다.

52

53

(53) 조국은 암담하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예속으로부터 해방되였고 김 일성 원수님은 조국으로 개선하시였다. 이 날부터 우리 나라의 새 살림은 시작되였다.

억압과 학대를 받던 로동자, 농민들과 근로 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주의 새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54) 일본 제국주의 놈들에게 징병, 징용으로 강제로 끌려 갔던 사람들도 제 나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 와 아버지, 오빠, 동생들을 부여잡고 기쁨의 눈물들을 흘린다. 봉숙이도 왜놈 경찰의 집에서 해방되여 다시 옛집으로 돌아 온다. 그러나 웬일인지 봉일이만은 소식이 없다.

54

㊺ 봉숙이는 오빠와 몰래 만나던 바다'가 벼랑 바위터에 나와 매일 같이 오빠를 그리워 한다.

《오빠! 죽었나 살았나. 죽으면 안 돼. 빨리 돌아 와 이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가! 이제는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세상이 됐어!》하며 오빠가 남기고 간 모자를 안타까이 부여잡는다.

㊻ 한편 일본 제국주의 놈이 망하자 선주놈은 읍내 지주놈과 함께 흉계를 꾸며 포구의 선창과 수다한 배들을 폭파시키고 미국놈이 강점하고 있는 남조선으로 도망치며 한다.

㊼ 일본 땅 탄광에까지 끌려 갔던 봉일과 성호 아저씨는 온갖 장애를 뚫고 그립던 고향을 찾아 발'걸음을 다그친다. 그 동안 봉일은 갖은 풍파와 로동 속에서 단련되여 믿음직한 로동자로 자라 났다.

(다음 호에 계속)

복수를 받아라!

—황남도 장연군 산수 중학교 단 제 4 분단 장 명철 동무에 대한 이야기—

본사 기자 김 준규 그림 김 성엽

그의 마음

바람 한 점 없이 무더운 재작년 여름 어느 날 군사 유희 시간이였다.

한 아이가 학교 운동장'가 나무 그늘 밑에 앉아 물끄러미 학교 뒤'산 쪽을 바라 본다. 그리로 분단 동무들이 군사 유희를 하느라고 활개쳐 올라 가고 있었던 것이다.

동무들을 바라 보는 명철이의 가슴 속에서는 무엇인가 불쑥불쑥 치밀어 오른다. 당장 뛰여 올라 가 동무들과 함께 놀고 싶은 것이였다.

그러나 명철이는 뛸 수 없다. 한 쪽 다리가 병신인 그는 천천히 걸어도 금시 앞으로 어푸러질 것처럼 휘청거리며 걷는 것이다.

이러한 명철이가 용일이네 분단에 전학해 온 것은 그들이 인민반 3 학년 때였다.

분단 동무들은 그가 온 첫날부터 친형제처럼 따뜻이 도왔다. 한 마을에 사는 차 정우와 조 명산이는 징검다리나 개울물을 건늘 때면 그를 도와 서슴없이 발을 벗고 나섰다.

다른 마을에서 다니는 동무들까지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몹시 부는 날 아침이면 마중 나와 서로 번갈아 업고 갔다.

명철이는 어디 가나 이런 정다운 동무들과 함께 배우며 지내는 것이 좋았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마음 대로 뛰여 다닐 수 없는 것이 안타까왔다. 동무들이 뽈차기를 하거나 군사 유희를 하는 날이면 더욱 그러했다.

동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기쁘게 해 주려고 뽈차기를 할 때면 그를 문지기로 세웠다.

그러나 군사 유희 때만은 어쩌는 수가 없어서 명철이는 오늘도 이처럼 산으로 올라 가는 분단 동무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산으로 오르던 아이들은 어디로 몰려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이윽하여 문압'골 쪽에서 아이들의 만세 소리가 메아리쳐 울려 왔다. 그 만세 소리가 얼마나 힘차게 명철이의 가슴을 울리는지 몰랐다.

《명철아, 너도 어서 와 놀자.》하고 분단 동무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것만 같다.

(나도 다리만 성하면 지금 저 애들처럼 뛰여 다니며 으시댈거야, 참 저 애들은 얼마나 좋을가.)

명철이는 걷잡을 수 없는 생각에 벌떡 일어 나서 절뚝절뚝 동무들 쪽으로 몇 걸

음 발'길을 옮기다가 다시 되돌아 서며 혼자'말로 중얼거리는 것이였다.

《가면 뭘해, 뛰지도 못 할 걸…》

용일이네가 군사 유희를 끝내고 내려 오니 명철이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명철아! 아직 여기 있었니?》 분단 위원장인 용일이와 분단 동무들은 반가와 하면서도 한편 그와 함께 놀지 못 해 미안하다는듯 달려 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명철이와 함께 놀지 못 한 것이 못내 서운했던 것이다.

명철이는 어찌하여 병신이 되였고 그처럼 동무들과 함께 마음 대로 뛰놀 수도 없게 되였겠는가? 그 어떤 놈들이 명철이에게 이 불행을 가져다 주었는가?

명철이는 죽지 않았다

조국 해방 전쟁 시기의 일시적 후퇴 시기인 1950년 10월, 원쑤들이 명철이네 고향 마을인 황해도 장연군 학림리에도 기여 들었다.

자위대장으로 일하시던 명철의 아버지도 후퇴의 길을 떠났다.

어린 명철이를 업은 어머니는 할머니와 함께 뒤'울안에다 그 해 곡식을 묻고 있었다.

이 때 별안간 문 밖에서 귀에 선 총'소리가 들렸다. 원쑤놈들이 달려 든 것이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하던 일을 서둘러 끝내고 들어 오는데 《잘 한다, 낟알을 감췄지? 모를 줄 알구.》 하며 총을 멘 원쑤놈들이 떡 마주 섰다.

《군복은 어디다 감췄니?》 어머니가 인민 군대 아저씨들의 솜동복을 짓고 있은 것을 알고 온 원쑤놈들은 총'부리를 들

여 대며 다우쳐 물었다.

《군복은 인민 군대에 보낸 지도 오랬다.》

《뭣이? 가자!》

이렇게 어머니는 원쑤놈들에게 끌리여 갔다.

어머니는 명철이를 업은 채 모진 고문을 받았다. 원쑤놈들은 어린 명철이를 업은 어머니를 총탁과 채찍으로 마구 때리며 구두'발로 사정 없이 밟고 차고 하였다. 어머니는 등에 업힌 채 자지러지게 우는 명철이를 앞으로 돌려 꼭 품었다. 그러자 원쑤놈들은 《에익, 듣기 싫어.》 하고 어머니의 젖가슴을 파고 들듯 허비며 우는 명철이를 빼앗아 문 밖에 내던졌다.

《안 된다, 이 승냥이놈아! 어린애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엉, 이 날벼락 맞을 놈들.》 어머니는 허겁지겁 달려 나가 자지러지게 우는 명철이를 피 흐르는 치마폭에 싸 안았다. 원쑤놈들은 다시 어머니를 끌어다 이 번에는 물을 끼얹고 가죽채로 미친듯이 갈겨댔다. 이렇게 어머니는 일곱 차례의 고문을 받았다. 어머니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원쑤놈들은 명철이를 굶어 죽으라고 《감방》 대문 밖 반 남아 허물어진 방공호 속에 집어 던졌다. 더는 명철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밤이 이슥하여 정신을 차린 어머니는 《명철아! 명철아!》 하고 부르며 애타게 찾았다. 그러나 명철이는 없였다. 어머니는 와락 보초놈을 떠밀치고 밖으로 달려 나갔다. 이 때 어머니는 흰 옷을 입고 《감방》 앞 집 울안으로 사라져 가는 한 할머니를 알아 보았다. 어머니를 향해 손'시늉을 하며 바삐 가는 그는 명철이의 할머니였다.

《감방》 옆을 지나 가던 마을의 한 할아버지가 명철이를 방공호 속에 집어 던지는 것을 보고 할머니에게 가서 알렸던 것이다.

어머니는 다시 《감방》 안으로 끌려 들어 왔다.

원쑤놈들은 더욱 미친듯이 날뛰였다. 마을의 애국자들을 갖은 방법으로 학살하였고 인민들의 재산을 마음 대로 빼앗아 갔다.

쫓겨 가는 마지막 날 밤에 원쑤놈들은 마을의 집집마다에서 빼앗아 온 곡식 낟가리로 《감방》을 빙 둘러 싸았다. 로동당원들과 그의 가족들을 이 곡식과 함께 불에 태워 죽이려는 것이다.

(내가 원쑤놈들에게 죽으면 명철이는 어찌는가, 살아야 한다. 살아서 명철이를 살리자. 명철아, 너는 살아서 이 원쑤를 갚아야 한다.)

그 어떤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난 어머니는 굳은 마음을 먹고 보초놈의 곁으로 다가 갔다.

《집에 가서 할머니와 아이들을 한 번만 만나 보고 오게 해 주오.》

《좋아, 마지막 소원이니 들어 주지, 이제라도 넌 감춰 둔 군복만 내놓으면 살 수 있다.》 하고 원쑤놈은 빈정대듯 뇌까리였다. 원쑤놈은 무엇인가 어머니에게서 알아 내려는 희망을 걸고 따라 섰다.

피투성이가 된 몸을 간신히 이끌며 집으로 오신 어머니는 눈'짓으로 할머니에게 결심을 알리였다.

《엄마!》 하고 세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에게 와락 매달리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모든 것을 다 알아 차린 할머니가 눈을 흘기시며 세 아이를 덥석 그러안았던 것이다.

원쑤놈은 총을 메고 부엌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명철이를 업고 감쪽같이 뒤'문으로 빠졌다.

산을 넘고 또 넘어 장연읍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외가'집에 다달으니 날이 훤히 밝았다.

명철이를 내리워 보니 이곳 저곳에 멍이 들고 피투성이 된 몸은 공공 얼어 든 것이였다.

마을이 해방된 후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함께 돌아 와 할머니와 두 어린것을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없었다. 어머니가 빠져 나온 그 날 밤 원쑤놈들은 할머니와 두 어린것을 끌어다 학살하였던 것이다. 그 후 어머니는 구월산 빨찌산을 찾아 떠났던 명철이 아버지도 그만 미제 원쑤놈들에게 학살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는 백배 천배 복수의 불'길이 타번졌다. 한 해, 두 해가 지났지만 명철이는 겨우 엉금엉금 기며 일어 서지 못 하였다.

아직 뼈도 채 굳지 못 한 어린 명철이가 그처럼 원쑤놈들의 구두'발에 채우고 채찍에 맞았으니 어떻게 되였겠는가.

명철이는 끝내 다리 병신이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그는 한 쪽 다리를 절며 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면 안 되였던 것이다.

원쑤놈들아 보라!

지난 해 12월 어느 날 아침이였다.

평양 의학 대학 병원 외과에서는 소년단원들로부터 보내 온 한 통의 편지를 놓고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 앉았다.

《의사 선생님들! 미제 원쑤놈들은 명철이를 병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 그 애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때까지는 문지기 밖엔 못

섰어요, 다리를 쓰지 못하니까요. 선생님들, 명철이의 다리를 꼭 고쳐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뽈도 차고 군사 유희도 하면서 마음껏 뛰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용일이가 분단 동무들 모두의 마음을 한데 모아 평양 의대 병원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였다.

편지를 읽는 리 영렬 병동장 선생님은 흥분 때문인지 자주 말씀을 끊었다 잇군 하시였다.

《선생님, 명철이를 데려 옵시다.》

《빨리 데려다 고쳐 줍시다. 미제 원쑤놈들에게 본때를 보여 줍시다. 그리고 조국의 꽃봉오리들인 이 애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줍시다.》

의사 선생님들도, 간호원 누나들도 모두다 한 마음으로 벌떡벌떡 일어 서서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명철이는 평양 의대 병원에 입원하게 되였다.

병원 외과 선생님들은 여러 번 거듭되는 회의를 가졌다.

명철이를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 대로 뛰여 다닐 수 있게 하자면 어린애 주먹만한 두 개의 뼈를 왼 쪽 넓적다리에 더 넣어 주어야 했다.

명철이의 수술을 손수 맡아 나선 리 영렬 병동장 선생님은 의학책들을 수두룩이 쌓아 놓고 며칠 밤을 꼬박 새웠지만 다른 방법을 찾지 못 하였다.

(명철이의 다리를 꼭 고쳐 주어야 한다. 그가 무엇 때문에 병신이 되였는가? 미제 원쑤놈들 때문이다. 원쑤를 갚는 마음으로 명철이의 다리를 수술해 주자.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의 뼈를 뗄 것인가?)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 나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다. 선생님의 눈앞에는 복수에 불타는 마음을 안고 고향 마을을 지켜 싸우다가 미제 원쑤놈들에게 무참히 희생되는 명철이 아버지의 모습이며, 복수의 총검을 들고 원쑤를 맞받아 나아가는 앞날의 명철이의 자랑찬 모습이 떠올랐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조국의 앞날을 걸머지고 나아갈 조국의 꽃봉오리들에게 어찌 미제 원쑤놈들이 남긴 더러운 흔적을 그 대로 둘 수 있겠는가!)

더는 주저할 수 없었다. 어서 빨리 명철이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고, 즐거움을 주고 싶었다.

(미제 원쑤놈들아, 보라! 이제 우리는 네 놈들이 죽이려던 명철이를 훌륭한 축구 선수로 만들 것이다.)

발'길을 돌린 선생님은 그 길로 외과 과장 선생님을 찾아 가 의논하였다.

바로 그 날 밤, 수술 준비를 해 가지고 들어 선 문 창실 간호원 누나는 깜짝 놀랐다.

어디서 위급한 환자가 와서 수술을 하는가 하였더니 수술대에 누워 있는 것은 뜻밖에도 리 영렬 병동장 선생님이 아닌가! 순간 모든 것을 알아 차린 누나는 《선생님!》 하고 목메여 부르며 핀센트를 떨구었다.

리 영렬 병동장 선생님은 명철이에게 뼈를 나누어 주기 위해 지금 자기 뼈를 떼여 내려는 것이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리 영렬 선생님이 수술대에서 일어 나자 이 번에는 리 대형 외과 과장 선생님이 수술대에 오른다.

《과장 선생님, 제 뼈를…》

참다 못 해 창실 누나가 달려 들었다. 이 때 《창실 동무!》 하는 과장 선생님의 엄한 눈'길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간호원 누나는 더는 말 못 하고 그만 입술을 깨물며 흐느낄 뿐이였다.

지금 이 선생님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마다 뼈를 떼내겠다고 소동이 일어 날가 봐 그 누구도 알리지 않고 남몰래 뼈를 떼여 내고 있는 것이였다.

미제 원쑤놈들은 명철이를 죽이려고 그리도 간악하게 덤벼 들었지만 여기서는 그의 희망찬 앞날을 위하여 두 선생님이 자기의 뼈를 떼내고 있다!

얼마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명철이의 다리에 두 의사 선생님의 몸에서 떼여 낸 뼈를 넣어 주는 수술이 진행되였다. 수술 칼은 방금 전에 자기 뼈를 떼여 낸 리 영렬 병동장 선생님이 쥐고 있었다. 선생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피'기가 없고 온 몸에서는 철철 땀이 흘러 내렸다.

이 때 이 수술에 참가한 다른 간호장 누나는 금시 쓰러질 것만 같은 선생님에게 의자를 가져다 권하면서도 명철이의 넓적다리에 넣어 주는 그 뼈가 누구의 것인지는 몰랐다.

수술장에서 언제 그런 걸 가릴 겨를이 있겠는가!

네 시간 동안이나 진행된 수술은 그 대로 전투였다. 수술이 끝난 다음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간호장 누나며 병원의 모든 선생님들, 간호원 누나들은 모두 자기 뼈를 나누어 주지 못 한 것을 아수해 하는 것이였다.

이처럼 명철이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원 누나들의 극진한 사랑 속에 병원 생활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사회주의 조국의 그 어디를 가나 명철이에게는 친어머니처럼 따스한 손'길이 미치였다.

어느 날이였다. 명철이가 분단 동무들에게서 보내 온 편지를 읽고 있는데 간호원 누나가 들어 와

《계란 상자가 또 왔어요. 명철인 참 행복해요.》 하며 방긋 웃었다.

명철이는 너무도 기쁘고 감격해서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을지 말을 못 하고 머뭇거릴 뿐이다.

그러나 명철이는 자기에게 보내 온 계란 상자 속에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지는 아직 몰랐다.

명철이가 수술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분단과 학교와 마을에 퍼졌다.

이 때부터 평양 외성 구역 우편 통신원 아주머니들은 날마다 산수 중학교 동무들이 보내는 우편물을 나르기에 바빴다.

통신원 아주머니의 우체 가방은 아이들이 보내는 편지와 신문과 잡지, 책들로 꽉 차군 하였다.

한편 학교의 담임 선생님의 책상 우에는 아침마다 평양으로 올라 갈 계란이 쌓였다. 마을 어머니들도 명철이의 어머니를 찾아 와 《성의 뿐이예요. 평양에 보내 줘요.》 하며 계란이며 사탕곽들을 내놓았던 것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군 수매소의 수매원 아주머니들도 말 없이 계란 꾸러미를 가져다 놓고 나갔다.

장연읍 우편국 통신원 아주머니들도 거저 지나 가지 않았다. 우체 가방이 불룩하게 계란을 사 넣어 가지고 왔다.

이러한 사람들, 이렇듯 아름답고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사회주의 조국에서 자라는 명철이는 얼마나 행복한가! 머지 않아 명철이는 미제 원쑤놈들이 남긴 더러운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정다운 분단 동무들과 함께 이제는 문지기가 아니라 공격수로, 미국놈 잡이 군사 유희의 돌격대장으로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될 것이다.

—자강도 강계 중학교 제 13 분단 (2 중 모범 분단)
김 정숙 동무의 야영 일기 중에서—

4월 30일

야영!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인다.

이번에 나는 우리 분단 동무들과 함께 중앙 소년단 야영소에 가게 된다.

나는 집에 돌아오자 마자 《어머니! 난 야영소에 가게 됐어요.》 하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

《야영이라는 게 뭐냐?》 어머니는 야영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셨다. 어머니는 나의 말을 듣고서야 기뻐하시며 《그럼 돈이 많이 들겠구나, 차비는 얼마나 먹는다던?》 하고 차비 걱정부터 하셨다. 차비는 나라에서 다 물어 준다고 내가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그래두 밥값이야 내야겠지?》 하고 거듭 물으셨다. 나는 밥값도 나라에서 주기 때문에 돈은 1 전도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참 고마운 일이로구나, 난 놀러 가는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간다는 말은 난생 처음 듣는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본에서 언니가 학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을 나에게 들려 주셨다.

언니가 후꾸오까현 다가와시 후나오 소학교 4 학년에 다닐 때의 일이였다. 학급에서는 5일 동안 수학 려행을 떠나게 되였다. 선생님은 매 사람이 차비와 밥값 모두해서 45 원씩을 준비해 오라고 했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찬 돈이였다. 그 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후나오 세멘트 공장에서 석회석 운반공으로 일하셨는데 둘이 버는 돈이 합해서 하루 겨우 82 전이였다 한다. 그러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겠는가.

언니가 돈을 구해 내라고 너무 졸라대서 견디다 못 해 아버지는 공장에 가서 돈을 미리 좀 꾸어 달라고 사정했지만 자본가놈은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는 것이다.

그래 어머니가 이 집 저 집 다니며 사정해서 꾼 돈이 겨우 12 원 밖에 안 돼서 언니는 끝내 돈이 모자라 수학 려행을 못 가고 그 날 종일 밥도 안 먹고 울었다는 것이다.

그 후 언니는 수업료를 물지 못 해 끝내 4 학년에서 퇴학을 맞고 말았던 것이다.

어머니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가슴 뜨겁게 느꼈다.

《김 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나는 원수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보며 이렇게 입속으로 몇 번이고 외웠다.

5월 3일

소년단 중앙 야영소가 자리 잡고 있는 석암에 도착했다.

야영소를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야영소라기에 어느 산' 등성이 같은 데 만들어 놓은 천막집에서 생활할 줄만 알았는데 생각과는 달랐다.

경치 좋은 봉화산 기슭에 벽돌로 지은 으리으리한 5 층 집 야영소가 궁전처럼 화려하게 솟아 있었다. 야영소 앞에는 바다와 같이 넓은 호수가 있고 거기에는 야영소의 수 많은 뽀트들이 떠 있었다.

야영소의 경치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이 아름다왔다.

야영소 안에 들어 선 나는 다시 한 번 눈이 휘둥그래졌다. 침대들이 주른히 놓인 수 많은 침실들, 식당, 구락부, 도서실, 음악실, 소년단실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우리는 5 층 7 호실에 들었다. 호실에 들어 서기가 바쁘게 나는 너무도 기뻐서 두둥실 춤을 추며 돌아 갔다.

문득 아직 일본에 있는 정자의 생각이 났다.

(정자는 오늘도 늙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삯방아질을 하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니 어쩐지 그가 가엾기 그지없었다.

학교에 바치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 두게 된 날 《난 이젠 학교에 못 다니겠어…조국에서는 누구나 다 즐겁게 배우구, 행복하게 산다는데…》

눈물이 글썽해서 이야기하던 정자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히 들리는 것만 같았다.

(정자도 조국에 왔으면 얼마나 좋을가. 그랬으면 중학교에도 다니고 이처럼 야영 생활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 걸…

제일 좋은 것은 어린이들에게 주는 나라—내 조국은 참말 좋은 나라이다. 이런 조국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저녁에 일본에 계시는 언니에게 오늘의 기쁨을 적은 편지를 썼다.

5월 10일

즐거운 야영의 하루가 또 저물었다. 야영소에 온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 주일이 지났다.

오늘은 자모산성으로의 행군이 있었다. 맛 있는 점심밥과 사과, 과자, 알사탕, 통조림, 사이다 등을 가득 담은 배낭을 지고 나서니 일본 후나오 소학교 3 학년에 다닐 때 원족 가던 일이 생각 났다.

그 때 있는 집 애들은 지금 우리처럼 맛나는 음식을 배낭이 가득 차게 지고 갔지만 나는 보리밥에 사과 두 알을 싸 가

지고 갔다. 점심 시간이 되여서도 나는 밥곽을 내놓기가 부끄러워 어머니가 사 준 사과 두 알만 먹고 밥은 그냥 가지고 돌아 왔다.

점심 후 지도원 선생님한테서 자모산성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보물 찾기 놀음, 식물 채집을 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5월 12일

오늘은 친선 체육 경기가 있었다. 정말 유쾌한 하루였다.

우리 나라의 각 곳에서 온 동무들과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니 처음에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아직 그들의 실력을 모르는 우리는 경기에서 수치스럽게 지지나 않겠는가고 은근히 걱정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한 종목, 두 종목 경기를 하면서 자신을 가졌다.

륙상, 롱구, 예술 체조에서 우리 분단은 모두 이겼다.

배구 경기에서 신의주 남송 중학교 1분단 동무들과 맞섰을 때는 정말 떨렸다. 그들은 남자들이였다.(우리들이 남자들을 이길 수 있을가?)고 근심했다. 그러나 막상 해 보니 우리가 이겼다.

어제 연예 경연에서도 우리는 우수한 성적을 올렸는데 오늘 체육 경기에서도 모든 종목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우리는 야영소에 와서도 《2중 모범 분단》답게 분단의 영예를 빛내였다.

5월 17일

즐거운 야영 생활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우리는 16일부터 이틀 동안은 평양에 와 묵으면서 김 일성 원수님께서 나서 자라신 만경대와 혁명 박물관, 미술 박물관,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 동물원을 견학하였다. 그 중에서도 만경대의 견학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만경봉에 오른 나는 《학습터》에 가 앉아도 보고 《썰매 바위》를 타 보기도 했다. 《그네터》, 《씨름터》…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모든 곳을 찾아 다니며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가슴을 설레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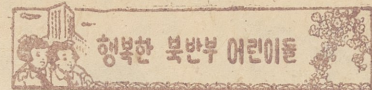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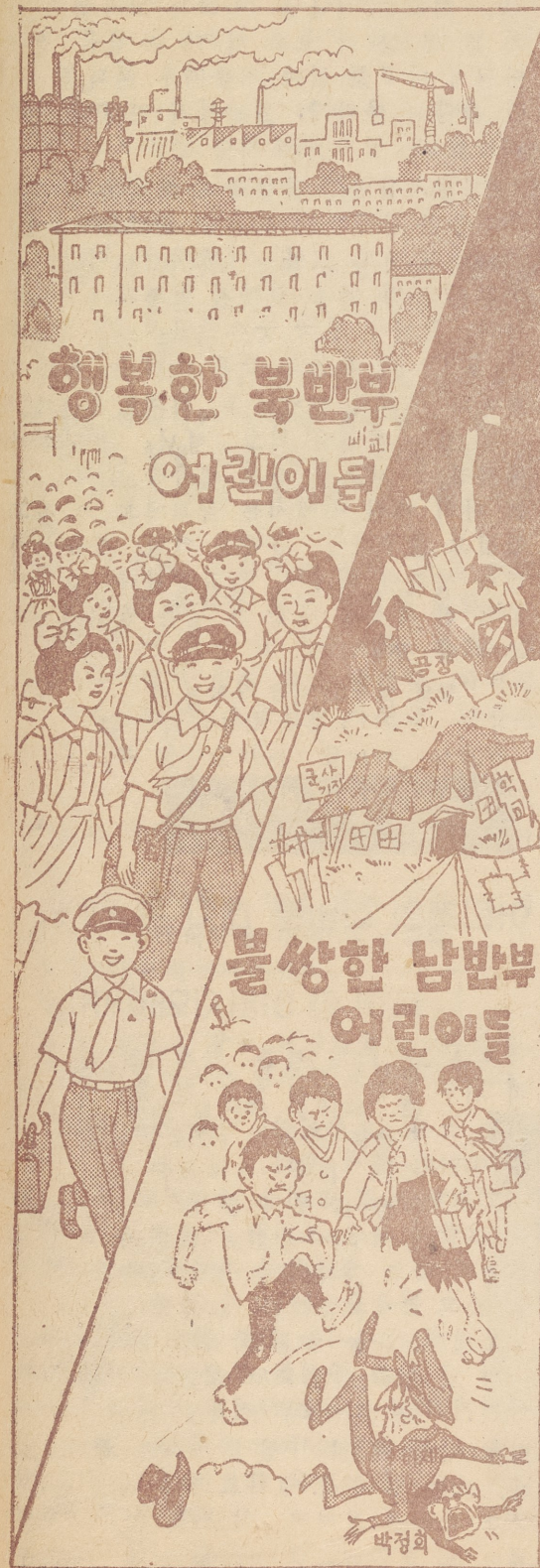
그 동안 야영소에서 사귄 동무들과 헤여질 것을 생각하니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는 학교에 가서도 서로 편지로 소식을 나눌 것을 약속하고 차에 올랐다.

렬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 중앙 위원회가 있고 김 일성 원수님께서 계시는 평양! 우리는 이 평양을 떠났다.

(김 일성 원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야영 생활을 끝내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 갑니다.)

나는 마음 속으로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나는 학교에 돌아 가면 소년단 생활과 학습에서 더욱 모범이 되여 당과 원수님의 사랑과 기대에 보답할 결의를 다지며 평양을 떠났다.

온 집안이 학생

전국 모범 소년단 열성자 대회가 열리고 있던 지난 4월 어느 날입니다.

오전 회의를 끝내고 나오니 우리를 싣고 갈 뻐스는 벌써 부릉부릉 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뻐스에 오르자 마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회에 올라 와 배운 노래를 세 가지도 채 못 불렀는데 뻐스는 어느새 려관 앞에 와 멎었습니다.

《야, 이렇게 가까운데 걸어 와도 될걸.》 하는 생각을 하며 뻐스에서 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용아!》

《용아!》 하고 누군지 연거퍼 내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형님!》, 《누나!》 너무도 기뻐 나는 막 소리 지르며 뛰여 갔습니다.

글쎄 김 일성 종합 대학 물리 화학부를 졸업하고 과학원에서 일하는 맏형님과 국제 관계 대학 4 학년에서 공부하는 둘째 누나가 찾아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어린이 방송 시간에 너의 토론을 듣고 왔어, 오빠도 들었대.》

나의 앞가슴에 드리운 붉은 넥타이를 대견스레 바라 보며 누나가 말했습니다.

사실 토론 준비를 하느라고 내내 가슴을 울렁이며 바삐 보낸 건 사실이지만 형님, 누나들을 찾아 오게 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우리 3 형제가 나란이 서서 대동강 유보도 쪽으로 걸어 가는데

《야, 용인 참 좋겠네.》 하며 동무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민주 수도 평양에서 형님과 누나를 만난 것도 기쁜 일이지만 교원 대학을 졸업한 맏누나도, 기술 학교에 다니는 세째 누나도 어머니와 함께 라지오에서 나의

토론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근로자 중학교에 다니시는 어머니는 그 때 아마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시다가 들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공부를 하고 계실 때면 기술 학교에 다니는 세째 누나가 아침'밥을 짓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뭐 새벽에 일어 나 공부해야 머리에 잘 들어 간다나요. 근로자 중학교 최우등생으로 칭찬이 자자한 어머니지요.

《아무려면 내 너희들한테 질 줄 아니?》

어머니는 늘 이러시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 속에는 우리 5 형제를 자랑스러워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 나 공부하는 것을 우리들에게서 배웠다고 하십니다.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은혜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누구나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공부하는 우리 나라! 이 고마운 제도 아래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그러하지만 우리 형님, 누나들은 모두 나라에서 장학금까지 받으며 대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 5 형제가 언제나 최우등생으로 공부하는 것은 나라의 크나큰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5 형제는 지난날 학교는 고사하고 기차 한 번 못 타 보고 먼 70 리'길을 걸어 다니며 나무를 팔아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 갔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비참한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님, 남반부 아이들도 대회에서 보낸 우리들의 편지와 내 토론을 들었을가요?》

대동강'가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나는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벙긋 웃으시면서 《그럼 듣지 않구, 네 토론을 듣고 우리 5 형제를 얼마나 부러워 했겠니.》 하시였습니다.

맛 있는 점심을 먹고 형님, 누나들과 헤여진 후 뻐스를 타고 대극장 구경을 가는 나의 머리 속에서는 학교에도 못 가고 헐벗고 굶주리는 남반부 어린 동무들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행복을 나눌 그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함남 신창군 덕음 중학교 단
1 분단 위원장 박 용

불상한 남반부 어린이들

어린것의 학비를 대지 못해 ─ 죽어 간 아버지와 어머니

지난 2월 25일 이른 아침이였다.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김 종태네 집에서는 그의 오누이와 마을 사람들의 울음 소리가 들려 왔다.

고요한 아침 공기를 깨뜨리고 퍼져 가는 그들의 울음 소리는 어떻게도 슬피 들렸는지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도려 내는 듯 했고 눈물을 자아내게 했다.

종태네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가?

이 날 아침 종태는 동생 영숙이와 함께 아버지가 일 보시는 자전거 수리점에 가서 자고 날이 채 밝기 전에 집으로 돌아 왔다. 그는 집 문을 열려고 했으나 안으로 굳게 잠겨져 열리지 않았다. 아마 잠이 깊이 든 모양이라고 생각한 그는 문을 두드리면서 어머니를 불렀다.

틀림 없이 집안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실텐데 도무지 문을 열어 주지 않으니 이상한 일이였다.

《혹시나?》 종태는 더럭 겁이 났다.

두 오누이는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울고 또 울었지만 방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아직 채 밝기도 전에 요란하게 들리는 아이들의 울음 소리에 잠을 깬 동네 어른들이 달려 왔다.

《인길이 아버지, 문이 열리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방안에 계실텐데…》

종태의 말을 들은 인길의 아버지와 마을 어른들은 문을 부시고 안으로 들어 갔다.

아, 그런데 집안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었다. 방안에는 꽉 들어 찬 석탄내가 코를 찔렀고 가지런히 누워 있는 종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오누이의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굳어져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목숨을 끊기 위해 일부러 석탄'불을 피워서 가스 내를 맡고 죽은 것이였다.

종태와 영숙이는 정신 없이 와락 달려가 아버지, 어머니를 쥐여 흔들었다.

《아버지—어머니—이》

《엄마—아》

암만 불러도 방금 대답할듯한 아버지, 어머니의 입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만 금이야 옥이야 하던 어린것들을 이 거치른 세상에 남겨 놓고 억울하게 죽어 가는 원한 때문에 채 감지 못 한 눈에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을 저주하는 빛이 서리여 있을 뿐이였다.

너무도 비참한 일이였다. 어제'밤까지만 해도 종태와 영숙이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실컷 공부시키지 못하고 잘 먹이지 못 하여 걱정하시던 어머니, 아버지가 죽었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머리맡에는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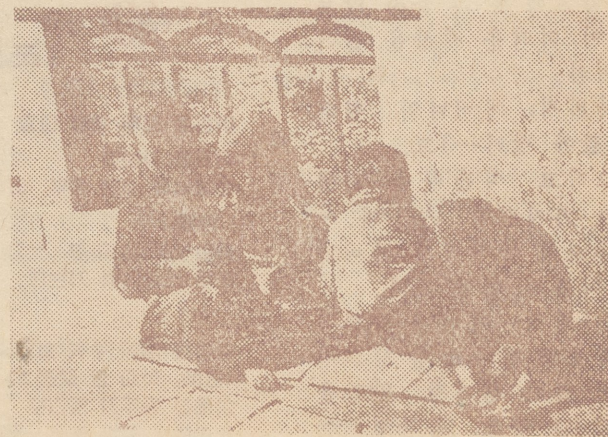
《중학교 입학 시험에 합격한 종태의 입학금 5천 원을 마련할 길 없어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 한 가책을 받아 죽어 간다. …종태야, 너를 중학교에 못 보내고 죽어 가는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영숙이랑 부디 잘 자라라…》

종태는 금년에 부산시 동신 《국민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부산 중학교 입학 시험을 쳐서 합격했다.

그러나 종태는 학교에 입학하지는 못했다. 그의 집에는 입학할 때 물어야 할 돈 5천 원이 없었던 것이다. 종태는 매일 집에 앉아 울면서 지냈다. 아버지가 자전거 수리점에서 일해서 하루 겨우 두 끼를 무우죽이나 비지죽을 먹고 사는 그의 집에서 5천 원이란 많은 돈을 구할 수 없었다.

남의 집 아이들은 새 옷 입고 중학교에 가는데 종태는 집에 앉아 울고 있으니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팠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종태의 입학금을 구해 보려고 무척 애를 썼다. 돈이 있을만한 집을 찾아 다니면서 《꼭 벌어서 갚겠으니 5천 원만 꾸어 주소…》 하고 사정했으나 부자놈들은 《흥, 죽도 제 대로 못 먹는 신세에 언제 물어?》 하고 대답할 뿐이였다.

기가 막힌 일이였다. 부자놈들은 개까지 자동차에 태워 《개 학교》에 보내는데 종태는 돈 5천 원이 없어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니…

집도 부모도 없이 거리에서 헤매는 남반부의 어린이들

아버지, 어머니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땅을 치고 통곡도 해 보았고 가슴을 쥐여 뜯기도 했다. 그러나 돈을 구할 길은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에게 밥도 제 대로 먹이지 못 하고 학교에도 못 보내는 신세에 살아서 뭘하랴…차라리 이 더러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나고 말리라… 이렇게 마음 먹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아버지, 어머니는 쓸만한 물건을 죄다 팔아 눅거리 옷일 망정 한 벌씩 사다가 애들에게 입혔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입쌀을 사다 저녁을 지어 애들에게 배불리 먹였다. 어머니는 종태와 영숙이를 껴안고 얼굴을 비벼댔다. 어린 아이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말자고 했으나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밤에 손님이 오니 방이 좁겠다. 너희들은 자전거'방에 나가 자거라.》

밤이 이슥해서 아버지는 두 오누이에게 이렇게 달래서 자전거'방으로 내보냈다. 이제 보면 다시 보지 못 할 아들딸을 내보내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아이들을 보낸 다음 그들은 자식들의 사진을 보고 또 보았다. 마음 속으로 종태에게 다짐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더는 살 수 없어서 떠나 간다. 그러나 너희들만은 굳게 자라서 다시는 어린 새 싹들이 돈 때문에 학교에 못 가 울지 않도록 이 더러운 세상을 쓸어 버려라.

아버지, 어머니의 원한을 갚아 달라…)고.

그리고 석탄'불을 피워 놓고 가지런히 누웠다.…

종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렇게 영영 갔다.

《아버지—어머니— 저만 중학교에 간다고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하고 몸부림치는 종태와 영숙, 《월수놈들의 등록금이 사람을 잡았구나… 아—》 하고 눈물 짓는 동네 어머니들의 슬픈 울음 소리만 들렸다.

종태와 영숙이는 하루 저녁 사이에 고아가 됐다. 그들은 이제 영원히 《아버지, 어머니》 라는 정다운 말을 하지 못 하게 됐다. 이리하여 그들의 오누이는 오늘도 남조선의 이 거리 저 거리를 헤매 다니고 있다.

종태의 아버지, 어머니를 빼앗아 간 놈들은 미국 승냥이놈들과 박 정희 도당이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남조선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종태와 영숙이도 우리들처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미국놈들을 남조선에서 몰아 내고 우리 나라를 하루 속히 통일해야 한다.

지금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이 날을 위하여 들고 일어 나 싸우고 있다.

우리는 싸우는 남조선 인민들과 학생 소년들의 투쟁을 힘껏 도와 이 날을 앞당겨야 하는 것이다.

불쌍한 남반부 어린이들

(동시)

눈물이 피는 이야기

아이들 모두 책볼 메고
학교를 가는데
선생님께 배운 공부 이야길 나
　누며
음악 시간에 익힌 노랠 부르며
모두 조잘대며 가는데

연이는 방에 누워 있었네
《연아, 학교 안 갈래?》
이웃집 동무가 불러도
입맛만 다시며 눈이 퀭한 채 누
　워 있었대.

어제 저녁
감자알 몇 개 먹을 때는
래일 아침엔 꼭 학교 가겠다고
동무들과 함께 학교를 가겠다고
　마음 먹었대
꿈에도 학교 가는 꿈을 꾸었대
그런데
연이는 학교를 가지 못 하고 누워
　있었대.
눈이 퀭해 가지고
오막집 토방 아래'목에 누워 일
　어 나지 못 했대.

또 그래 누워 있으니까
막 웃으시며 설명을 하던 선
　생님.
왁자그르르 웃는 반 아이들
엊저녁에사 몇 톨 먹은 감자툴
　이…
막 머리를 뼁뼁 돌더래.
《학교를 가야지—
　—학교를 가야지》

연이는 머리맡에 곱게 싼 책보를
　들고
힘을 주어 서 보았대
머리가 줄 돌더래
그만 자리에 푹 쓰러지고 말았대.

—아빠가 속병을 앓아 누웠대
엄마가 품팔이 할래도 할 데도
　없대
손'바닥만한 땅뙈기도 없대—
조그만 오막살이 밖에 없대—
연이는 폭싹 쓰러져 까무라쳤대
반 아이들 학교 가는 날
거의 이랬대

엄마가 노오란 얼굴로 얻어 벌어
　온 나물죽, 개떡죽, 감자들로
　흉년을 산대.

—연이 집 형편을 누가 알가?
하느님도 그걸 알가?
아무도 모른대
아무도 모른대.

이 동시는 남조선 신문 《국제 신보》에 실린 것입니다.

이 동시에서 보는 것처럼 연이는 먹을 것을 먹지 못 해 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연이의 아버지도 굶주림에 시달리다 속병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굶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품을 팔려고 집을 나섰으나 품팔이 할 곳도 없었답니다.

헐벗고 굶주리면서 학교에 가지 못 하는 어린이가 비단 연이 뿐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린이가 남녘 땅에는 150만 이상이나 됩니다.

이 얼마나 가엾은 일입니까!

이들이 구원되자면 반드시 우리 조국 강토에서 미제를 몰아 내고 박 정희 도당을 쓸어 버려야 합니다.

즐거운 우리 학교

얼마 전에 우리는 으리으리한 새 학교로 이사를 했답니다. 그 전에 공부하던 학교도 아담하였지만 그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은 먼저 우리 어린이들에게 돌려 주시는 당과 원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 더 크고 아담한 학교를 마련하여 주셨답니다.

훌륭히 갖춘 물리 실험실에서 마음껏 배운다.

우리 학교는 낮은 산'기슭 경치 아름다운 곳에 하늘을 찌를듯이 우뚝 솟아 있답니다.

넓다란 마당에는 축구장, 롱구장, 배구장, 씨름터, 그네, 미끄럼'대, 철봉, 평행봉 등 수 많은 운동 기구들이 갖추어져 있지요.

학교 안에는 우리들이 마음 대로 실험도 하고 실습도 할 수 있도록 많은 실험실들이 꾸려졌어요.

물리, 화학 실험실을 비롯하여 수학실, 음악실, 미술실, 꼬마 진료소, 가사 재봉실, 동물 연구실, 식물 연구실, 꼬마 방송실 등 열 다섯 개의 실험실과 연구실이 마련되여 있답니다.

실습지에다는 여러 가지 농작물들과 약초들도 심고 가꾼답니다.

우리 학교는 참으로 훌륭한 학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하게 꾸려진 학교에서 마음껏 배우며 행복하게 자라 나고 있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모두 자기의 취미에 맞

는 연구 소조에서 활동하지요.

그 뿐만이 아니지요. 《꼬마 방송실》에서는 《소년 선전 예술대》원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울려 나오고 학교 마당에서는 예술 체조, 기계 체조를 하는 동무들로 흥성거립니다.

우리의 하루 생활은 이처럼 흥겹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하게 꾸려진 우리 학교를 무척 사랑합니다.

올'봄에도 천여 그루의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를 학교 둘레에 심었습니다.

학교 앞 꽃밭에는 여름 한 철 내내 향기로운 꽃이 만발하도록 이른 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대낮에 피는 꽃, 저녁녘에 피는 꽃을 잘 섞어 심어서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소년단원 동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학교를 아름답게 꾸려나간답니다. 그러기에 책상과 걸'상, 마루'바닥은 언제 봐도 거울 같이 오리오리하답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학교가 다 그러하지만 나는 우리 학교를 제일 좋은 학교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해'빛 밝은 교실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배우며 즐길 때면 배우지 못 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거리에서 죽어 가는 남조선 동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책상과 걸'상이 없는 맨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공부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에게 이 불행을 가져다 준 미국놈들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어린이들도 우리와 같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더 잘 해 나가겠어요.

평양시 삼마 중학교 단 제 2 분단　방 명실

불쌍한 남반부 어린이들

맨땅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겨울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갓 시작된 지난 2월 초순 어느 날이였습니다. 부산시 동광 《국민 학교》에서는 공부하다가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 났습니다. 학교 랑옆 창'가에 어린이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저마다 먼저 나가겠다고 밀치고 닥치며 야단 법석이였습니다. 눈치 빠르고 몸이 날랜 아이들은 벌써 교실 창문을 뛰여 넘어 밖으로 냅다 뺐지만 힘이 약한 학생들과 녀학생들은 깔려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1 학년 어린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학생들은 《빨리 밖으로 뛰여 나가야 산다. 어서 빨리 빨리…》 하고 웨치면서 어쩔 바를 몰라 했습니다. 왜 이런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을가요?

이 학교는 지은 후 아직 한 번도 손질하지 않아 인제는 거의 무너져 가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교실마다 나무를 버티여 놓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보슬비만 내려도 이 학교의 교실의 이 곳 저 곳에 비'물이 새서 학생들은 책보를 싸들고 돌아 갑니다. 바람만 좀 일어도 교실이 무너질가 봐 어린이들은 공부를 하지 못 하고 창 밖만 바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도 아침부터 날씨가 흐려 어린이들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낮이 좀 기울자 날씨가 더 사나와지더니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창문과 지붕이 흔들렸고 당장이라도 학교를 뒤엎을듯 사방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학교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날 부산시 내에서는 이 학교 뿐만 아니라 남부민, 토성 등을 비롯한 8 개 《국민 학교》들에서 이런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남조선에는 이와 같이 쓰러져 가는 학교가 부산시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손질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교실이 무려 2만 2천 여 개나 되며 그 중 5천 여 개의 교실이 곧 무너질 위험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가 무너져 학생들이 치워 죽거나 상하는 일이 자주 일어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실마저 엄청나게 모자라 어린이들은 《교실 아닌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자라는 교실 수는 3만여 개나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들에서는 60 명 밖에 앉을 수 없는 한 개 교실에 100~120 명씩 넣고 있습니다. 마치 시루의 콩나물처럼 어린이들이 빼곡히 들어 앉아 공부하고 있어 《콩나물 교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도 모자라서 2~3 개 학년을 한 교실에 몰아 넣고 공부하는 《복식 수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4 부제 수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천막 교실》, 《가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책상, 걸'상들이 없어서 맨땅에 엎드려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요행 학교에 들어 갔다는 어린이들도 이처럼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정희 도당은 올해도 《기성회비를 거두어 학교를 수리하라》니 뭐니 하면서 무너져 가는 교실을 수리해 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공부하는 남반부 어린이들.

불쌍한 남반부 어린이들

선생님께 보낸 눈물겨운 편지

《선생님께 올림.

선생님, 방학 후 결석을 하여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식량이 없어 결석하였습니다. 어머님은 품팔이도 없습니다. 아버지 혼자 미군 부대 로동일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젠 몸이 아파서 일드 못 합니다. 우리 일곱 식구에겐 식량이 없습니다. 오늘 9일째 밥 구경을 못했습니다.

외상으로 하루는 두부 세 모, 하루는 묵 세 모로 일곱 식구가 살았습니다. 외상 값을 받으러 옵니다.

나는 배가 고파 동생들과 같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웁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무 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동생들은 밥을 달라고 웁니다.

나는 눈물이 납니다.

선생님!

학교에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량식을 구하면 곧 학교에 가겠습니다.

제자 김 윤태 올림》

× · ×

이 편지는 경상 북도 칠곡군 왜관에서 살고 있는 김 윤태 학생이 지난 2월 13일 《석전 국민 학교》 제 4 학년 1 반 담임 선생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남조선 신문 《령남 일보》에 실린 것.)

미군놈 앞에서 일하던 윤태 아버지는 힘든 일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지금 앓아 눕게 되였습니다.

가난한 윤태네 집 일곱 식구들은 먹는 날보다 굶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 식구들은 꼬박 굶었습니다.

아호레를 굶고 난 윤태 동무는 학교에 도저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담임 선생님께 학교에 갈 수 없는 자기의 눈물겨운 사연을 엮어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문 희 준

(1)

겨울 날의 저녁 별이 설피게 비쳐 드는 언덕바지 우 토굴집 뜨락에서 태호는 씨근거리며 톱질을 하고 있다. 바다'물에 젖은 널판자는 톱날이 잘 들지 않았으나 그는 오동통한 몸'집에서 기운을 짜내기라도 하듯이 낑낑거린다. 쌀쌀한 날씨였으나 그의 넓적한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 내려 숱이 진한 눈섭에 이슬처럼 맺혔다.

그는 지금 지난 밤에 덕산집 할아버지와 함께 남단 마을에 건너 갔던 일이 생각 나 몹시 기운이 솟았다.

할아버지는 이 돌섬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원쑤놈들의 동정을 알아 내여 뭍 쪽의 빨찌산 련락처에 알리군 하였다.

태호를 비롯한 소년단원들도 할아버지를 도와 삐라 붙이기와 정찰하는 일들을 하여 왔었다. 그리고 헤염과 배 모는 솜씨가 능난한 태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남단 마을에 련락을 가군 하였다.

그런데 태호는 지난 밤 남단 마을 련락 장소에서 빨찌산 대원이 된 그리운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을 만났다.

인민 군대와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이 진격해 나온다는 반가운 소식도 듣게 되였다.

《…우리 빨찌산은 인민 군대와의 협동 작전으로 2~3 일 안에 돌섬을 해방하기로 했다. 너희들은 할아버지랑 함께 놈들의 새로운 무력 배치 정형을 알아 내여 래일 밤으로 알려 주기 바란다.》

지도원 선생님은 태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했다.

《태호야, 잘 해야 한다! 이건 당이 너에게 주는 임무이다!》

《네? 당이 저에게요…?》

태호는 서글서글한 큰 눈을 더욱 휘둥그리며 지도원 선생님을 바라 보았다.

당이 자기와 같은 소년단원을 믿고 임무를 주었다는 바람에 그만 가슴이 벅찼던 것이다.

그에게는 평화 시기의 어느 날 분단 위원장으로 선거 받은 자기에게 지도원 선생님이 들려 주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분단 조직이 너에게 주는 영예로운 임무이다. 소년단 생활에서 조직의 위임과 영예를 잘 지켜 내는 것을 배워야 앞으로 훌륭한 민청원으로, 로동당원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너의 아버지를 폭풍 속의 바다로 내몰아 세상을 떠나게 한 선주놈 따위를 쳐부시는 길이다…》

태호는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조직이 주는 위임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는 정신으로 분단 사업을 잘 꾸려 나갔다. 그래서 그의 분단은 언제나 단'적으로 모범이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넋이 깃든 돌섬 앞뒤바다에 굴이며 미역, 곤포들이 꽉 차게 할 앞날을 꿈꾸고 해양 연구 소조 활동도 재미 나게 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아버지를 죽인 원쑤인 선주놈이 미군과 국방군놈들을 따라 평화롭고 행복하던 섬에 다시 기여 들었다.

그 놈들은 부지런한 섬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고 학살하고 재물을 뺏고 있는 것이다.

(그 짐승 같은 놈들을 한시 바삐 쳐부시기 위하여 영예로운 이 임무를 꼭 해내고야 말 테다!)

태호는 이렇게 굳은 결심을 다졌다.

섬에는 요새 울산, 해중 등 뭍 쪽에서 적들이 쫓겨 들어 와 무력 배치가 시시로 달라졌다. 그러나 태호랑은 그것을 감쪽같이 알아 냈다. 오늘 밤 태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그 자료를 가지고 남단으로 건너 가기로 되여 있었다.

태호는 노 한 채를 가지고 할아버지와 교대로 노질을 하는 일이 늘 갑갑하던 판에 지난 밤 뒤'불에 배를 붙이다가 그 곳 물'가에 부러진 노가 밀려 나온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쪽배를 바위 뒤의 비밀 굴에 숨겨 둔 다음 노를 메고 왔던 것이였다. ……

태호가 노 손질을 다 끝냈을 때이다. 영민이가 무엇에 쫓기듯 헐떡거리며 달려 왔다.

태호와 나이도 같고 키도 비슷하나 몸'집이 가늘고 회좁은 얼굴인 그는 태호보다 한두 살 쯤 어려 보였다.

그는 달려 오면서 소리 쳤다.

《태…태호야! 야단 났다!》

그리고는 숨이 차서 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나루터 쪽을 손'짓할 뿐이다.

《뭔데 그래…? 덤비지 말라니까…》

《젠장! 이런 때도 덤비지 말라구? 덕산집 할아버지가 잡혔어…!》

《아니 뭐? 덕산집 할아버가…?》

태호는 금시 얼굴'빛이 파래지며 잡았던 톱을 떨어뜨린다.

《어제'밤 울산에서 도망 쳐 온 자식들이 급해 맞아서 노질을 하다가 도래'굽이에 걸려 노를 분지르면서 떨어뜨렸대! 오늘 아침 그 노를 찾느라 물'굽이를 따라 돌아 다녔다지 않아……놈들은 그 쪽배를 덕산집 할아버지가 쓰던 배란 걸 알아 내구 할아버질 잡아 갔대.》

태호는 그만 통분한 생각이 치밀어 입술을 깨물며 머리를 떨구었다. 언제건 만나기만 하면 머리부터 쓰다듬어 주군 하던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가슴에 안겨 왔다. 이제 할아버지를 뺏기고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캄캄했다.

원쑤들의 폭격으로 두 채 밖에 남지 않은 돛배를 놈들은 빨찌산과의 련락이 두려워 치안대 사무실 앞 바다'가에 매여 두었다.

련락 용으로 가만히 빼 돌렸던 그 쪽배마저 빼앗겼으니 오늘 밤의 련락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 때 영민이가 이런 말을 했다.

《방금 덕산집 할머니가 찾아 오셨어. 섬에 빨찌산 아저씨가 와 있으니 만나라고 하셨어. 할아버지가 잡혀 가시면서 귀띔 하셨대.》

《정말? 그게 누구래?》

태호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다.

《할머니도 밤에 한두 번 밖에 못 봤대. 사공처럼 솜저고리를 입었드래……》

눈앞이 트는 것 같던 태호는 그만 맥이 풀렸다. 글쎄 이름도, 주소도, 얼굴도 모르는 그 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다가 헛걸리면…………

《영민아, 저놈들의 동정부터 살펴 보자.》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태호는 이렇게 말하며 언덕길로 앞서 내려 갔다.

부두에는 정말 련락 용의 낯 익은 쪽배가 얹혀 있었다. 그런데 놈들은 지금 큰 돛배에 무슨 짐짝들을 싣노라 부산을 떨고 있었다. 사무실 쪽에서는 치안대장인 선주놈이 졸개들에게 꽥꽥 소래기를 지르면서 돌아치고 있었다.

(저 놈이 도망 치려는 게 아냐?……음, 두고 보자. 네 놈을 놓치진 않을 테다.)

태호는 주먹을 부르쥐며 속으로 웨쳤다.

그런데 이 때 그들이 내려 온 언덕길로 키다리 곤섬이와 오토기 팔명의 칠수가

달려 내려 왔다. 태호는 또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았나 해서 가슴을 조이며 그들에게로 마주 갔다. 그런데 근섭이가 눈을 숨벅거리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였다.

《태호야, 빨리 피해, 치안대가 너를 잡으러 돌아 다녀……》

《뭐, 나를?》

태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놈들이 우리 비밀을 눈치 챈 게 아닐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이차 너의 집앞에서 만났어. 우릴 보더니 대뜸 태호를 못 봤냐구 묻겠지. 그래 모른다고 하고 내뺐지 뭐……꾸물거리다간 잡힐 게 아냐.》

근섭이가 이런 말을 하는 새에 철주는 연신 뒤 쪽을 돌아다 본다. 《치안대》놈이 금시 그리로 내려 올 것만 같았다.

태호는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섬 뒤'산 골짜기에 있는 박쥐굴로 동무들을 데리고 올라 갔다.

(2)

별'빛도 추위에 움추린듯 캄캄한 밤이다. 맵짠 북서풍이 눈'가루를 휘몰아다가는 출렁이며 울부짖는 바다'물에 뿌려 붕군 한다.

태호와 영민이는 아까부터 바다'가 바위 뒤에 숨어서 배를 맨 부두 쪽을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박쥐굴에 모여 앉아 빨찌산 공작원을 찾아 낼 방도를 오래 짜 보았으나 끝내 신통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태호는 정찰한 자료를 오늘 밤으로 남단에 보고할 임무가 우선 급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영민이와 함께 쪽배를 빼앗아 타고 남단으로 건너 가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근섭이와 철주는 지금 부두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나루터 뒤'산에 숨어서 놈들의 동정과 태호랑의 행동을 살피고 있었다. 태호랑이 위험할 경우에는 치안대 사무실에 돌 팔매질을 하여 놈들의 주의를 자기들에게로 이끌자는 것이였다.

그런데 배를 맨 부두에는 보초놈이 서 있고 치안대 사무실 처마에는 칸데라 불을 두 개나 켜 달아 부두는 낮처럼 밝았다. 그래서 서뿔리 행동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벌써 반 시간이나 이 대로 엎드려 있는 판이였다. 온 몸은 추위에 얼어 들고 손발이 아려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태호는 입술을 악물고 참고 있는데 영민이는 노상 곰지락거리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 한다.

《에이, 무슨 날씨가 이리도 추워…》

영민이가 이렇게 중얼거렸을 때이다.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아다 보니 어느새 왔는지 《치안대》 한 놈이 서있는 게 아닌가!

태호는 닻줄을 끊으려고 품고 있던 식칼 자루를 꽉 틀어 쥐고 그를 노려 보았다.

그런데 《치안대》원은 뜻밖에도 낮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묻는 것이였다.

《너희들 태호랑 한 패지?》

《아니예요. 우린 저……》

태호가 변전을 붙이려는데 《치안대》원은 적 웃으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였다.

《배를 훔쳐 타려다구 솔직히 말하렴… 자, 내가 도와 주께 이리로 오너라!》

《……?!》

둘은 그만 어리둥절해서 마주 볼 뿐이였다. 그러나 태호는 경각성을 바싹 높였다. (낮부터 찾아 다니던 놈인가 봐. 우리 일을 눈치 채고 이렇게 얼려서 비밀을 파보자는 심'보 같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는 급한 데를 갈겨 주고 내빼자고 영민이에게도 눈'짓했다.

《치안대》원은 오던 길을 되돌아 저 쪽 나무 숲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그러고 얼굴을 찌프리고 선 태호를 유심히 살피더니 갑자기 반기는 어조로

《옳지, 네가 태호구나!》

하고 말하는 것이였다.

태호는 더욱 영문을 몰라했다. 그리고 보니 어덴지 낯 익은 데가 있는 《치안대》원 같기도 했다.

《……낮부터 찾았는데……덕산집 할아버지에게서 너희들 얘기를 다 듣고 있다. 너희들께 감사를 드린다!》

태호는 그제야 덕산집 할아버지와 함께 남단에 건너 갔다 오다가 뒤'고개'길에서 이《치안대》원을 만났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뒤'불 쪽 고개'길을 톺아 오르는데 앞에서 인기척이 났다. 올려다 보니 바로 이 《치안대》원이 고개'마루에 서 있었다.

《태호야, 숲속으로 해서 얼른 피해 가거라!》

할아버지의 귀띔 대로 태호는 숲속으로 기여 들어 갔다. 그러나 할아버지 일이 마음에 걸려 고개'마루 쪽을 엿보았다. 할아버지는 무슨 종이쪽 같은 것을 《치안대》원에게 넘겨 주더니 별 일 없이 그 자리를 지나치는 것이였다.

지금 비로소 태호에게는 이《치안대》원이 바로 다름 아닌 빨찌산 공작원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였다.

《아저씨! 아저씬 빨찌산이지요?》

태호는 너무나 기쁘고 반가와 아저씨의 손을 잡으며 다우쳐 물었다.

《그래……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다.》

아저씨는 두 소년의 어깨에 팔을 얹으며 말을 이었다.

《저 놈들이 이젠 하늘처럼 믿던 미군이 도와 주려 올 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는 걸 깨닫고 래일 새벽에 이 섬을 떠나기로 했단다. 그래 섬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낸 재물을 몽땅 배에 실어 놓고 큰 돛배에는 바삐 들어 옮기기 어려운 중기관총 두 문까지 실어 놓았단다.

그러니 저 배들을 몽땅 풀어 타고 바다로 나가야겠다. 그러면 놈들은 독 안에 든 쥐가 될 게다. 그리고 련락 임무도 훌륭히 해 낼 수 있구, 그래야 빨리 저 놈들을 족치고 덕산집 할아버지와 마을 애국자들을 구원하지 않겠니.》

《야! 거 멋진데!》

두 소년은 서로 마주 보며 눈을 끔찍거렸다.

그들은 곧 뒤'산에 숨어 있는 근섭이와 철주도 데려 왔다.

《자! 내가 열 두시에 저 보초놈하고 교대할 테니까 그 때 너희들은 닻줄을 끊고 배를 바다로 내몰아라.》

아저씨는 누가 어느 배를 맡을 것까지 짜 주었다.

그리하여 태호랑은 저녁에 손질해 두었던 노를 가지고 아까 숨었던 바위 뒤에 다시 숨었다. 이윽고 아저씨가 나타나더니 보초를 교대한다.

얼마 후 아저씨는 손을 들어 신호했다. 그러자 아이들은 잽싸게 배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칼로 닻줄을 끊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긴장된 얼굴로 사무실과 아이들 쪽을 번갈아 살펴 보며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섬에는 어른들의 지하 조직이 있었으나 아저씨는 그들을 섬 해방 전투를 돕는 다른 일을 준비시키고 이 일엔 몸이 날

랜 소년들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였다.

그런데 이 때 사무실에서 순찰인듯한 두 놈의 그림자가 밖으로 나왔다. 그 놈들은 대뜸 부두 쪽으로 달려 오며 소리 치는 것이였다.

《야! 보초! 저게 웬 애새끼들이야?》

아이들은 그만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보초를 섰던 아저씨가 그 놈들의 가슴에 총'부리를 내대며 낮고 힘찬 목소리로 명령했다.

《꼼짝 말고 서 있엇!》

두 놈은 엉겁결에 손을 들었다.

《자 빨리하자!》

태호가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근섭이와 철주는 큰 돛배에 올라 배를

달고 바다로 내몰았다. 중기관총을 실은 배를 맡은 태호도 어느새 닻줄을 끊고 배 우에 뛰여 올랐다. 섬에서 내 부는 바람은 돛을 올리지 않아도 배를 바다로 불려 가게 했다.

그런데 쪽배를 맡은 영민이는 아직 배를 물에 띄우지 못 하고 있었다. 돛배들이 바다에 다 나간 다음 아저씨가 함께 내밀고 타기로 되였었는데 순찰놈들이 나오는 바람에 일이 틀리고 만 것이다.

그런데 사무실에서는 수상한 바깥 동정을 알아 채고 네댓 명의 《치안대》원이 몰려 나오는 것이였다. 더는 그냥 있을 수가 없게 됐다.

아저씨는 앞에 서 있는 두 놈부터 갈겨 치웠다. 그리고 모래'불에 엎드리며 사무실에서 나오는 놈들에게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총'소리에 놀란 《치안대》와 《국방군》놈들이 밀려 나오기 시작했다.

떠나 가는 돛배 우에서 초조히 영민이를 지켜 보고 섰던 태호는 더는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더니 설레는 바다'물에 첨벙 뛰여 들었다. 얼음보다 차거운 바다'물이 짜릿하게 온 몸을 조여 든다.

그러나 태호는 그런 것을 감각할 경황도 없이 쪽배 있는 데로 헤염쳐 나왔다. 영민이를 도와 쪽배를 바다'물에 밀어 내렸다.

《아저씨, 빨리 와 타세요!》

태호는 영민이를 배'간에 밀어 넣으며 소리 쳤다. 아저씨는 사격을 계속하면서 뒤'걸음을 쳐 오더니 냉큼 몸을 날려 배에 올랐다.

《장하다! 태호야! 노질을 해 내겠니?》

《네, 걱정 마세요!》

태호는 활기차게 대답하며 노를 젓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배'전에 엎드려 밀려 나오는 적들에게 계속 명중탄을 퍼부었다.

쪽배는 놈들의 집중 사격을 받게 되였다. 횡횡 총알이 귀'전을 스치는 소리가 아처롭게 들려 왔다.

《태호! 키를 낮추라! 키를 낮추고 저어라!》

아저씨는 총질을 하면서 거듭 태호에게 주의를 주군 한다. 그러나 태호는 빨리 사격권을 벗어 나고 남단에 무사히 가 닿으려는 생각으로 힘을 다해 노를 저을 뿐이였다. 물에 젖은 옷은 이미 갑옷처럼 팡팡이 얼어 들었으나 몸 안에서 불'길이 타는듯 땀이 후줄근히 내배였다.

겁에 질렸던 영민이는 장수 같이 돋우 보이는 태호에게서 힘을 얻고 주저앉은 채 노 허리를 잡고 노질을 도와 주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태호는 바른 쪽 어깨가 선뜻하더니 그만 팔맥이 쭉 빠지며 비칠거렸다.

《태호야!》

아저씨가 다급히 그를 부축하였다.

《일 없어요. 아저씬 자꾸 쏴 주세요.》

태호는 이를 악물고 노를 잡았다.

《태호야, 내가 저으마!》

영민이가 일어 선다. 그러나 태호는 한사코 그를 눌러 앉히며 기를 쓰고 노질을 계속했다. 동무를 아끼는 마음과 이 자리에서 쓰러지면 임무를 수행 못 하게 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기운을 돋게 한 것이다. 그러나 눈앞이 자꾸 캄캄해지고 등골으로는 식은땀이 빠질빠질 배여 나왔다.

아저씨는 사격을 계속하면서도 연신 걱정어린 눈'길로 태호를 살피군 한다.

《바른 쪽으로 젓자! 저게 네가 띄운 돛배다!》

영민이가 이렇게 소리 치며 함께 기운을 내여 노를 저었다. 태호는 죽을 힘을 다해 그 쪽으로 배를 몰았다.

쿡 하고 쪽배가 큰 배에 닿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꿈 속에서처럼 들으며 태호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

얼마를 지났는지 귀청을 째는듯한 중기관총 소리에 놀라 태호는 눈을 떴다.

영민이가 자기 옷과 아저씨의 옷을 갈아 입혀 주고 어깨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 주고 있었다. 그는 태호가 눈을 뜬 것을 보자 반가와 어쩔 줄을 모르며 소리 친다.

《야! 살았구나! 태호야. 아저씨가 중기로 놈들을 막 녹여 내고 있다!》

정말! 아저씨는 고물 쪽에 쌓인 짐짝 우에 중기를 뻗쳐 놓고 부두에다 몰사격을 퍼붓고 있었다.

사무실 불'빛이 환해서 놈들이 쓰러지는 꼴이 낱낱이 보였다. 부두에는 시체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겁에 질린 놈들은 더는 머리를 내밀지 못 했다.

아저씨는 사격을 멈추고 태호에게로 달려 왔다.

《태호야!》

아저씨는 태호를 안아 일으키며 불렀다.

《아저씨 고마와요. ……》

태호는 어쩐지 눈물이 글썽해졌다. 이처럼 훌륭한 아저씨를 곁에 두고도 여직 모르고 지낸 일이 미안하게만 생각되였다.

《그건 내가 너희들께 할 말이다. 너희들이 아니였다면 이 일을 해 냈겠니…태호야! 정말 너는 훌륭한 소년단원이구나!》

《아니예요. 다 아저씨가 한 일이예요. 참 멋지게 쓰러 눕혔어요. ……아저씬 중기 사수였나요?》

《뭐, 광산에서 착암기를 휘두르던 솜씨를 좀 보였지……참 나는 너희들 지도원 선생님과 한 소대에 있었단다. 너희 지도원 선생님도 사격 명수더구나. 원쑤놈들을 백 명도 더 잡았단다.》

《야!》

태호와 영민이는 환성을 질렀다.

《선생님은 너희들 자랑을 입버릇처럼 하더라. 앞으로 이 바다를 온통 양식장으로 바꿀 연구를 한다면서……? 아주 훌륭한 일이다. 이제 원쑤들을 죽쳐 버리고 마음껏 공부들을 해라. 너희들이 어른이 될 땐 우리 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니. 너희들은 그 날의 주인으로 준비해야지.》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호는 앞으로 학습과 소년단 생활 그리고 해양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리라는 굳은 결심을 다지였다.

어느덧 돛배는 근섭이랑이 모는 돛배를 따라 잡았다.

《자! 남단 쪽으로 배'길을 잡아라!》

아저씨는 그들에게 소리 쳤다.

태호는 이제 지도원 선생님을 만나 당이 준 임무를 해낸데 대하여 보고할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였다.

그의 눈앞에는 래일 선주놈을 붙들어 내여 아버지의 원쑤를 갚을 통쾌한 정경이 안겨 왔다. 그리고 《감방》에서 나오신 덕산집 할아버지를 만날 반가운 정경도 떠오르는 것이였다.

그의 마음은 벌써 해방된 돌섬 우로 활개를 치며 달리고 있었다.

☆

☆ ☆

남이와 옥이

김 남수

우리는 야영소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솔섬이라고 하는 데예요. 앞에는 푸른 바다가 가없이 펼쳐지고 뒤에는 멀리 항구의 공장들이 가물가물 보이는 곳이예요.

바다'가에는 붉게 핀 해당화의 향기가 무르녹고 끝 모르게 펼쳐진 모래밭에선 온 종일 딩굴며 놀아도 싫증을 몰라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벌써 야영소에 온 지가 열흘이 넘았지만 그 동안 얼마나 재미 있게 보냈는지 한 이틀 밖에 안 된 것만 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들은 어떤 좋은 일을 했나구요? 야영소에 온 첫 날이였어요. 온 나라 각 곳에서 모여 온 많은 동무들과 처음 만났는데 사투리 때문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길수 동무가 정일이 보고 이렇게 첫 인사를 했지요. 《네레 낭강도서 완? 수고 했갔구나.》 정일이는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 못 하고 《애이다. 난 양강도서 왔다. 수곤 무실 했게, 차 타구 온 기.》이번에는 길수가 또 무슨 말인지 잘 알아 듣지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남이와 옥이는 동무들 앞에 나서서 야영하는 동안 표준말을 쓰도록 모두 힘쓰자고 했어요.

그 이튿날 아침이였습니다. 우리는 야영소의 첫 날을 어떻게들 보냈는가 보려고 동무들의 일기장들을 슬쩍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정애, 용길이의 일기장에는 글쎄 이런 말들이 적여 있질 않겠어요.

《야영소에 입소한 동무들》, 《분단을 편성하였다.》, 《아침 6 시에 기상하여》, 《오침 후에》, 《수영 및 일광욕 시간》, 《나팔 신호가 나자 전원 운동장에 즉시 집합하여》, 《취침 전에 일기를 기록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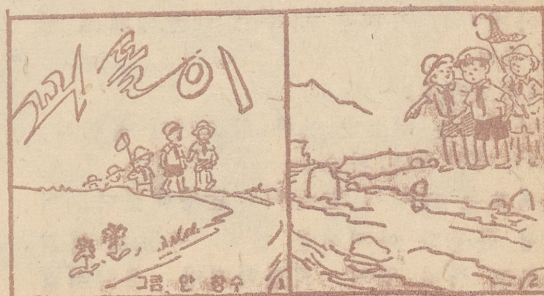
우리는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쓸가? 암만 생각해도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이는 물'감을 풀고 글씨 잘 쓰는 옥이는 붓을 적셔서 큰 종이에다 그 말을 다 옮겨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다는 그것을 쉬운 말로 고친 것을 나란이 붙이고 그것을 잘 보이는 곳에 붙였지요.

《야영소에 들어 온 동무들》, 《분단을 짰다》, 《아침 여섯시에 일어 나》, 《낮잠을 자고 나서》, 《헤염과 모래찜 시간》, 《나팔 신호가 나자 모두 곧 운동장에 모여》, 《자기 전에 일기를 쓰고》……라고 말이지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이 글을 본 동무들은 모두 쉽고 참 좋다고 손'벽을 쳤습니다.

야영소에 있는 모든 동무들이 더 쉽고 더 아름다운 말을 쓰기에 힘쓰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동무들은 방에다 《침구를 단정히 정돈합시다.》라고 써 붙였던 것을 《이부자리를 가뜬히 개여 둡시다.》라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용만이네 분단에서는 《제 16 분단 담당 화단》이라는 패말을 빼 버리고 《제 16 분단이 맡은 꽃밭》이라고 새 패말을 써서 박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야영소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여기 저기서 이런 일이 늘어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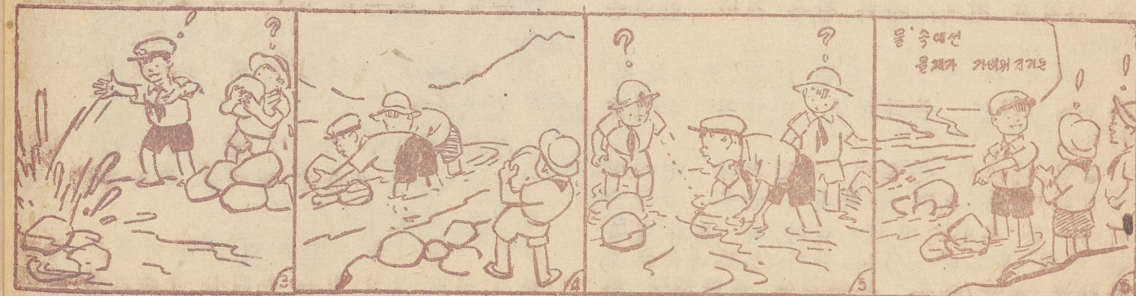
철진이네 분단에서는 《외모를 단정히 합시다.》하고 말하던 것을 《몸 차림을 단정히 합시다.》라고 말하게 되였고 현숙이네 분단에서는 《실내에서는 잡담을 금하고 정숙합시다.》고 하던 것을 《방 안에서는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합시다.》고 말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분단들에서 이런 좋은 일이 벌어지자 선생님에게 달려 갔습니다.

선생님들은 그것을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쉽고 아름다운 말을 쓰도록 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이가 큼직한 판을 하나 메고 오겠지요, 《그건 뭘 할 거니?》 하고 옥이가 물었어요. 그런데 남이는《응— 이거? 이전 아주 중요한 데 쓸 거야.》 아주 비싸게 굽니다. 옥이도 궁금한 것을 참고 몰라도 좋은듯이 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남이가 《사실은 저—》 하고 거기다 글씨를 좀 써 달라는 겁니다. 《바르고 아름다운 말》이라는 제목을 말이지요.

그제야 옥이도 깨닫고 반가와 하며 제꺽 멋지게 썼어요. 그리고는 둘이 맞들어다. 운동장 저쪽 가의 아름드리 소나무에 척 매달아 놓았어요.

거기다는 아무 동무나 바르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져다 붙입니다.

벌써 수십 장 되는 그런 글 가운데서 몇 개만 추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무들! 많은 동무들이 제 나이를 말할 때 《십사 세》, 《십오 세》라고 하는데 《열 네 살》, 《열 다섯 살》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제 5 분단 김 주남.

—제 8 분단 동무들! 동무들의 우등'불 모임 때에 윤희 동무는 《다음은 무용〈바다'가 야영〉입니다. 김 선옥 동무 외 삼명이 출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영 동무로부터 시 랑송이 있겠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 분단에서는 윤희 동무의 말을 놓고 의논하여 보았다. 우리들의 의견은 《다음은 춤〈바다'가 야영〉입니다. 김 선옥 동무와 그 밖에 세 명이(또는 세 동무가)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리 순영 동무가 시를 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한다.

(제 9 분단)

이렇게 모든 동무들이 야영소에서 쓰는 말을 아주 훌륭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곳 동무들은 야영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 가서도 모두들 이 일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만화)

전설

관해산에 오른 봉화

유 희준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이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392년 거란군이 고구려를 침략해 들어 왔을 때였습니다.

지금의 함경도 어느 지방에 관해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꼭대기에 봉화대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지금과 같이 교통이 발달되지 못 하였고 전보, 전화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높고 중요한 산'봉우리마다에 봉화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일 나라에 큰'일이 생겼거나 외적이 침입해 들어 오면 봉화대에 불을 놓았습니다. 한 봉화대에서 일어 난 봉화'불을 본 옆의 봉화대에서는 자기 봉화대에다도 봉화를 놓아 다음 봉화대에 련락하군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 봉화대에서 일어 난 불을 신호로 하여 알리게 되여 있었습니다.

관해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봉화대는 한 늙은 병사가 홀로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늙은 병사는 젊었을 때에는 외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언제나 용감하게 싸워 많은 공훈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늙은 병사는 병사들 속에서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그더러 늙은 몸이니 이제는 고향에 돌아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손자들이나 돌보아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국심에 불타는 늙은 병사는

《나라가 편안해지기 전에 어떻게 혼자만 편안한 생활을 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아예 듣지 않고 늙어서도 할 수 있는 봉화대를 지키는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맡아 나섰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비록 젊은 군사들처럼 원쑤와 직접 맞받아 싸우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봉화대를 지키는 것으로써 나라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늙은 병사는 어깨에는 활을 메고 손에는 창을 굳게 틀어잡고 다른 봉화대에서 봉화가 일어 나지 않는가 하고 줄곧 사방을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이 때였습니다.

거란군의 한 부대는 우리 나라 군사들이 자기들의 큰 부대가 쳐 들어 간 남쪽으로 나갔다는 것을 몰래 알아 내고 이 틈을 타서 이곳에 쳐 들어 왔습니다.

거란군은 이 지방을 점령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이 지방에서 제일 높고 봉화대가 자리 잡은 관해산을 점령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해산에 있는 봉화대에서 불을 놓아 다른 봉화대에 알리면 우리 나라 군사들이 맞받아 쳐 나오겠기 때문이였습니다.

해가 서산에 저물어 땅거미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방은 먹물을 뿌린듯이 캄캄해져 왔습니다.

날이 어둡기를 기다리던 거란군들은 봉화대가 자리 잡고 있는 관해산 꼭대기를 향하여 삵괭이처럼 살금살금 기여 올랐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가만가만 걸엇. 왜 자꾸 절거덕 소리를 내는 거야 응!》

쪽수염을 한 거란군 우두머리가 졸병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을러멨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벌써 봉화대 근처에까지 기여 올라 왔습니다.

적들은 봉화대 옆에 바싹 기여 들어 와 눈이 빠지게 봉화대를 노려 보았습니다.

한참 있더니 졸병 한 놈이

《봉화대에는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심이 된듯 옆에 있는 놈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번에는 우두머리 놈이 입을 열었습니다.

《문제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봉화대를 우리 손아귀에 넣고 어떤 놈도 봉화를 놓지 못 하게 해야 해.》

적들은 벌써 자기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듯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봉화대를 지키고 있는 늙은 병사는 거란군 척후병들이 봉화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있더니 대여섯 명이나 되는 거란군 놈들이 봉화대를 향하여 일제히 달려 들었습니다.

늙은 병사는 뜻하지 않게 거란군 놈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자기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자 어떠한 일이 있든지 놈들을 물리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온 정신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놈들이 봉화를 못 놓게 하려고 여기로 기여 들었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봉화대에 알려야 한다.》

이러는 사이에 어느새 한 놈이 날쌔게 다가 오고 있었습니다.

늙은 병사는 쏜살 같이 뛰여 나가 그 놈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 놈은 악 소리도 칠 사이 없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나머지 놈들은 겁에 질려 더는 달려 들 엄두를 내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였습니다.

《왜 굼벵이처럼 꾸물거리는 거야. 빨리 빨리 저 놈을 붙잡아라!》

라고 쪽수염을 단 우두머리 놈이 뒤에서 자기 부하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놈들은 또다시 비실비실 달려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늙은 병사는 이 때라고 생각하고 먼저 자기 앞으로 달려 드는 텁석부리 놈을 맞받아 나갔습니다.

그 놈은 《앗!》 하더니 마지막으로 긴 숨을 내쉬더니 멀리 쯤 가서 나자빠졌습니다.

이 순간이였습니다.

대여섯 명이나 됨직한 놈들이 늙은 병사의 뒤로 달려 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늙은 병사는 제일 먼저 달려 드는 놈을 붙잡고 씨름을 하였습니다. 늙은 병사가 그 놈을 타고 앉아 주먹으로 내리치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 번에는 쪽수염을 한 우두머리 놈이 달려 오고 있었습니다.

《옳지, 네 놈이 우두머리로구나. 너를 잘만났구나.》

그는 이를 악물고 달려 드는 그 놈을 붙잡고 그 놈 우에 올라 탔습니다.

적의 우두머리 놈도 만만치 않게 덤벼 들었습니다. 둘은 서로 깔렸다 탔다 하면서 한참 동안 싸웠습니다.

이처럼 엎치락뒤치락하다 그만 늙은 병사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늙은 병사는 적 우두머리 놈을 붙잡은 채 벼랑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한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제 정신에 돌아 온 늙은 병사는 어딘가 하고 주위를 살펴 보았습니다.

캄캄한 밤이였습니다. 하늘에서 별들만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늙은 병사는 일어 나 보려고 힘을 모아 움직여 보았습니다. 상처의 아픔으로 하여 몸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기가 벼랑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알아 차렸습니다.

(아, 봉화대를 거란군 놈들이 점령했겠구나. 이 대로 두면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자 상처의 아픔은 어디론가 간데 온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봉화를 놓아야 한다. 그래서 적이 침입했다는 것을 본진에 알려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날이 밝기 전에 알려야 한다.)

늙은 병사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 그는 아픈 몸을 일으켜 마을로 내려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날이 밝기까지는 아직 세 시간은 실히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5 리가 넘는 험한 산'길을 단숨에 달려 마을로 내려 갔습니다.

옷은 나무에 긁히고 찢기고 하여 성한 데가 없었고 그 모습을 알아 볼 수가 없게 되였습니다. 손은 바위에 긁히여 다 벗겨져 붉은 살이 드러나 보였고 여러 곳에서 붉은 피가 흘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처의 아픔을 잊고 어떻게 해서든지 봉화를 놓아야 한다는 이 한 생각 뿐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봉화를 놓을 기운도 없었고 봉화대에까지 올라 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정신을 가다듬고 정신 없이 마을로 달려 갔습니다.

마을 어구에 있는 어느 농사'집에 다달은 그는 자기 상처를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솔광기름만을 얻어 가지고 다시 되돌아 산으로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늙은 병사는 기름단지를 메고 가파로운 산'길을 올리뛰였습니다.

한참 뛰니 아래'도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온 몸은 솜 같이 나른해졌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발을 앞으로 내디디려 했으나 마음 뿐이지 걸음은 생각과는 달리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늙은 병사는 길 옆에 선 소나무에 잠간 기대 서서 숨을 돌렸습니다.

(여기까지 올라 오고 만단 말인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렇지 않다간 여기서…)

그는 아래'도리에 힘을 주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으로 내걸었습니다.

늙은 병사는 봉화대 가까이에 겨우 와서 푹 하고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는 온 몸의 힘을 모아 몸을 일으켜 봉화대를 쏘아 보았습니다. 봉화대의 나무 낟가리 옆에는 거란군 두 놈이 꺼떡꺼떡 졸면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놈들은 모두 코를 쿨쿨 골면서 정신 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두 놈쯤이나 보초를 서고 있고나. 저 놈들이 있는 데서 불을 놓을 수는 없지 않는가…)

봉화대까지는 퍽그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서 불을 피우다가 보초놈에게 들키는 날엔 큰'일이였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는 그 자리에서 불을 붙여 거기 가서 던질 힘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늙은 병사는 생각던 끝에 비장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가 만약 이 시각에 저 봉화대에 불을 지피지 못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시각이라도 빨리 불을 놓아 적이 들어 왔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는 생각할 사이도 없이 가지고 온 솔광기름을 꺼내서 다 찢어진 옷에다가 철철 흐르게 발랐습니다. 기름은 옷에 잦아 들고 몸에까지 배 들어 갔습니다.

다음 늙은 병사는 솔광기름이 잔뜩 묻은 자기 몸에다가 불을 달았습니다. 불은 처음에는 천천히 붙다가 한참 있더니, 늙은 병사의 온 몸을 휩싸았습니다.

이 때였습니다.

늙은 병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쏜살 같이 봉화대의 나무 낟가리를 향하여 달려 들어 갔습니다.

봉화대에 있는 나무 낟가리에 불이 달리더니 사방이 훤해지면서 불꽃이 튀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무가 타는 바람에 뜨거워 난 거란군 보초놈은 후다닥 놀라며 일어 났습니다.

그는 봉화대에서 타는 불을 보자 너무도 놀라서 아무 것도 생각할 사이도 없이

《불이야! 불이야!》

하고 고래 고래 돼지 멱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불'길은 벌써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아 올랐고 다른 봉화대들에서도 긴급 신호를 받자 련'이여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불'빛이 비친 늙은 병사의 얼굴에는 자기의 임무를 다 한 자랑찬 미소가 어리여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늙은 병사는 자기 목숨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을 지키는 성스러운 투쟁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봉화대의 긴급 신호를 받고 적이 쳐 들어 왔다는 것을 안 우리 나라 본진에서는 곧 군사들을 보내 거란군들을 한 놈도 남김 없이 모조리 쳐 없애 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거란군들은 다시는 이 지방으로 쳐 들어 오지 못 했답니다. 그리하여 나라와 인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이 늙은 병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 내려 오고 있는 것입니다.

샘물은 어떻게 생길가요?

땅 우에는 가끔 비가 온다. 땅 우에 내린 비는 시내로, 강으로, 바다로도 흘러 가고 또 땅 속으로도 스며 들어 간다.

땅 속에 스며 들어 간 물은 땅 속 깊이 있는 커다란 바위'돌 층이나 딴딴한 점토 층을 만나면 더 스며 들어 가지 못 하고 땅 속에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거나 그 대로 고여 있게 된다. 이렇게 땅 속에 물이 고여 있는 데를 파면 그 곳에는 우물이 생기게 되고 땅 속을 흐르다가 땅 표면으로 새 나오는 곳에는 샘이 생기게 된다.

척척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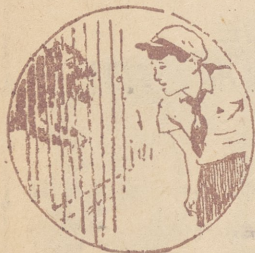
가축의 력사

일동—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척척할아버지—너희들이 또 왔구나.

영수—할아버지, 이 번에는 가축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알고 싶어서 찾아 왔습니다.

척척할아버지—오라, 이를테면 가축들의 력사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이지?

일동—예.

혜숙—할아버지, 우리 분단에서는 전 주 일요일에 대성산 동물원에 구경을 갔댔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척척할아버지 —무슨 이상한 걸 느꼈느냐?

혜숙—그런데 메'돼지가 우리들의 집에서 기르는 돼지와 정말 비슷하지 않겠어요?

척척할아버지—옳지, 그야 그럴 테지. 멀고 먼 옛날에는 돼지, 소, 닭, 양, 오리 등 모든 가축들은 산'짐승들이였단다.

일동—예?! 그런데 어떻게 되여 지금은 사람들이 기르게 되였나요?

척척할아버지—사람들이 산'짐승들을 가축으로 만들기까지에는 오랜 세월이 걸렸단다. 먼 옛날 원시 시대 사람들은 먹고 입고 살아 나가기 위해 돌멩이나 몽둥이로 짐승들을 잡아 고기는 먹고 가죽이나 털로써는 옷을 해 입었단다.

선화—아무 짐승도 잡지 못 하는 날에는 굶었겠지요.

척척할아버지—굶긴 왜 굶어, 사람들은 사냥을 하다가 어떤 짐승들은 엄지와 새끼들까지 산 채로 잡아다 두는 때도 있었단다.

만호—할아버지, 그러면 아무 것도 잡지 못 하는 날이면 그런 것들을 잡아 먹었나요?

척척할아버지—그렇단다. 새끼는 길러서도 잡아 먹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사람들은 짐승들을 우리 같은 데 가두어 넣고 기르면서 잡아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였단다.

선화—할아버지, 그러면 집돼지의 조상은 메'돼지겠구만요.

척척할아버지—그럼, 그렇구말구…사람들이 메'돼지를 산 채로 붙잡아다 기르는 사이에 메'돼지는 차츰 사납던 성질이 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몸의 어떤 부분은 달라졌단다. 례를 들면 집돼지는 메'돼지보다 다리가 짧은 것을 볼 수 있다.

선화—할아버지,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되였습니까?

척척할아버지—너희들이 《소년단》 4 호에서 《발을 가졌던 고래》란 토막 지식을 읽었느냐?

영수—예, 아주 재미 있게 읽었어요.

척척할아버지—고래가 륙지에서 살 때에는 발이 있었으나 바다에서 살게 되면서부터는 발이 쓸모가 없게 되였다. 그래서 차츰 발이 없어지게 된 거라고 했지?

일동—예!

척척할아버지— 바로 그처럼 산에서 뛰여 다니던 메'돼지 도 우리 안에서만 살게 되자 발은 잘 발달되지 못 하여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차츰 짧아지게 된 것이다.

만호—그러면 메'돼지는 주둥이도 길고 송곳'이도 긴데 왜 집돼지는 주둥이도 짧고 송곳'이는 다른 이들과 같나요?

척척할아버지—메'돼지는 산에서 주둥이나 송곳'이로 땅을 뚜져 풀뿌리나 나무뿌리를 굵어 먹거나 적들과 싸울 때 《무기》로 리용했단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르게 되면서부터는 주둥이나 송곳'이가 쓸 데가 없게 되였지. 그러니 차츰 긴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주둥이는 짧아지게 되였고 송곳'이는 다른 이들과 같게 되였단다.

선화—할아버지, 집돼지들이 놓여 나오면 여기 저기 자꾸 뚜지는 것이 바로 옛날 메'돼지 때 땅을 뚜지던 버릇이 있어서 그러는구만요?

척척할아버지—그렇단다. 말하자면 조상이 그런 버릇이 있였으니 그것을 물려 받은 셈이지.

혜숙—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나라 돼지도 지금 산에 있는 메'돼지에서 발전해 왔습니까?

척척할아버지—학자들이 연구한 데 의하면 우리 나라에 있는 재래종 돼지는 인도 지방에서 살던 메'돼지에서 발전되였다고 한다.

만호—그런데 인도 지방의 돼지가 어떻게 되여 우리 나라에까지 왔을가요?

척척할아버지—수천 년 긴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짐승들도 옮겨 가게 되였다. 그래서 조선까지 왔지.

선화—짐승들이 생활 형편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게 습성도, 몸도 달라진다는데 그런 성질을 리용하여 우리들의 생활에 더 리로운 짐승들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척척할아버지—암, 그렇구말구, 그러기에 축산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을 높이 받든 과학자, 기술자 아저씨들은 짐승들의 이런 성질을 리용하여 사료를 잘 먹고 살이 잘 지는 바꾸샤란 돼지와 새끼를 많이 낳고 고기 맛이 좋은 재래종 돼지를 쌍붙여 피현 돼지라는 것을 만들었단다.

영수—할아버지, 이 번에는 내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소는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습니까?

척척할아버지— 우리가 기르는 소도 들'소를 붙잡아다 길들여서 가축으로 만들었단다. 지금도 소의 조상인 들'소들이 세계 여러 곳에 살고 있단다.

만호—그러면 조선 소의 조상은 어느 지방에 있는 들'소입니까?

척척할아버지—과학자들이 연구한 데 의하면 조선 소 역시 인도 지방에 살고 있는 들'소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

혜선—할아버지, 우리 분단에서는 지난 3월에 황해 남도 안악군에 있는 하무덤(고구려 시대의 무덤)에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벽에 소가 그려져 있는데 그 소가 지금의 소와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척척할아버지—오라, 너희들이 잘 봤다. 소도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차츰 성질이 온순하여지면서 몸도 변해 왔다. 하무덤의 벽에 그린 소는 그 때 옛날의 소란다.

선화—할아버지, 책에서 보면 들'소의 뿔은 아주 큰데 집소의 뿔이 작은 것은 그것이 차츰 변하여 그렇게 된 것이지요?

척척할아버지—그렇단다. 들'소들이 산에 있을 때는 뿔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지만 가축으로 되면서부터는 뿔이 쓸모 없게 됐다. 그래서 그것도 점점 작아졌지.

혜숙—할아버지, 우리 나라에서 조선 소를 젖소로 만든 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척척할아버지—우리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은 조선 소를 젖소로 만들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힘을 써 왔다. 조선 소는 다른 소에 비하여 젖의 질이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젖통만 잘 발달시키면 많은 젖을 짤 수 있는 좋은

짧어 있다. 그래서 과학자 아저씨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 가며 연구하여 지금은 조선 소를 완전히 젖소로 만들었다. 지금은 조선 소 한 마리에서 1 년에 약 1.5 톤이나 젖을 짤 수 있다.

일동—야! 굉장하군요.

영수—할아버지, 이 번에는 닭의 조상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척척할아버지—사람들이 닭을 기르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천 년 전이라고 한다. 닭의 조상으로는 인도 지방의 산림 속에 살고 있는 야생닭 《반키바》란다. 그런데 야생 닭의 무게는 약 700 그람 정도이고 1 년에 겨우 10여 개의 알 밖에 낳지 못했단다.

그러나 다른 짐승처럼 닭도 가축으로 되는 사이에 습성도 변하고 몸 무게도 커지면서 알도 많이 낳게 되였단다. 례를 들면 우리 나라에서 새 품종으로 만든 송화닭, 룡연닭 등은 모두 알을 잘 낳는 좋은 닭들이다. 특히 흰닭은 1 년에 300 알 이상의 알을 낳는단다.

만호—할아버지, 그런데 흰닭은 제 힘으로 새끼를 까지 못 한다는데 정말입니까?

척척할아버지—옳다, 흰닭은 알을 품지 못한다. 흰닭이 처음부터 알을 품을 줄 몰랐던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닭을 변화시키면서 흰닭이 알을 많이 낳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알을 받기 위해 그 놈을 그렇게 만들었지. 알을 품기지 않으니 그 놈은 알만 낳게 되였거던. 이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흰닭은 거의 알을 품는 습성을 잊어 버리고 만 것이란다.

혜선—할아버지, 닭의 발'가락은 모두 다섯인데 왜 마지막 발'가락은 다리 뒤에 가 붙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척척할아버지—오라! 그것도 흥미 있는 문제지. 옛날에는 닭들이 그 발'가락을 사용해 왔단다. 너희들이 앞으로 《지구가 걸어 온 길》이란 글을 읽어 봐라. 수백만 년 전 세상에는 파충류(뱀, 도마뱀… 등)만 산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어떤 파충류들 속에는 발로 걸어 다니기도 하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뛰여 넘기도 했다. 그런데 그 파충류는 완전히 나무와 나무 사이를 뛰여 넘으며 생활하게 되자 앞다리는 날개가 되고 앞다리의 비늘은 차츰 변하여 날개 털이 되였다. 또한 몸에 있던 비늘은 털이 되고 발로는 나무'가지들을 붙잡았다. 나무'가지들을 붙잡을 때에는 네 발'가락만 써 왔다. 이렇게 되자 마지막 발'가락은 쓸모 없게 되면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작아지게 된 것이다.

선화—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앞으로 생물학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부쩍 납니다.

척척할아버지—암, 그것 훌륭한 생각이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물학 앞에는 할 일들이 많단다. 지금 우리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은 여러 가축들의 새 품종을 많이 연구해 내고 있다.

일동—할아버지,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척척할아버지—잘 가거라.

개가 땀을 흘릴가요?

동무들은 여름철에 조금만 날이 더우면 개가 혀를 길게 빼아 내물고 헐떡거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럴가요?

개 몸에는 땀을 내보내는 구멍이 발'가락에만 있기 때문에 땀을 그 만큼 빨리 내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온 몸에는 땀'구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는 혀를 길게 내뽑고 혀로부터 침(수분)을 증발시켜 자기 몸을 더위로부터 조절하는 것입니다.

야영 지식

숲속에서의 하루

올 여름에도 동무들은 아름다운 조국의 산과 들, 유서 깊은 명승 고적지들로 즐거운 행군, 등산, 야영을 떠나겠지요.

여기에 동무들이 야영, 행군, 답사 생활에 도움이 될 놀음 몇 가지를 소개 해 드립니다.

△ 숲 속에서 보초 서는 법

보초는 망원 보초, 중간 보초, 정문 보초, 불무지 보초로 나눈다.

망원 보초는 천막으로부터 100~150 보 쯤 떨어진 곳에 두 사람씩 (쌍보초) 서며 중간 보초는 천막에서부터 50~60 보 쯤 떨어진 곳에 두 사람씩 (쌍보초) 선다.

보초들 사이의 련락은 보초장이 암호를 짜서 비밀로 알려 준다.

불무지 보초는 잠 자는 야영생들의 옷에 불꽃이 튀여 가지 않도록 하며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일을 한다.

△ 《진지 쟁탈전》

진지 쟁탈전은 풀이나 나무가 우거진 두 개의 산이 서로 마주 보이는 곳에서 할 수 있다.

산'봉우리 사이의 거리는 400~600 메터 쯤이 좋다. 이 놀음은 분단 별로 경쟁하는 것이 좋다. 준비할 것은 길이 1 m, 직경 4 Cm 되는 두 개의 말뚝을 준비하여 한 개에는 빨간색 줄을 긋고 다른 한 개에는 하늘색 줄을 긋는다. 이 말뚝은 홍군, 청군을 표시한다.

매개 동무들은 길이 10 Cm, 너비 4 Cm의 마분지 패쪽 하나씩을 준비하여야 한다. 패쪽에는 각각 한 가지씩의 무기를 그려 넣는다. (그림 참고)

이 놀음은 말뚝을 찾아 내여 먼저 빼앗아 오는 편이 이긴다.

말뚝은 각각 자기 편이 차지한 산꼭대기에 참모부를 정하고 그 참모부에 꽂아 놓는다.

놀음을 시작하기 전에 당 편에서는 군장 한 명, 정찰병 2~3 명, 감시병 2 명, 공격조 20여 명, 방어조 5~6 명, 말뚝 사수조 3 명, 련락원 한 명을 정한다.

군장은 자기 편의 모든 전략 전술을 짜며 놀음을 지휘한다.

정찰병은 적 참모부의 위치와 적의 력량 배치 정형을 알아다 군장에게 보고한다.

감시병은 높은 곳에서 적의 움직임을 살피며 거기에서 얻은 자료를 군장에게 보고한다.

공격조는 적의 말뚝을 빼앗아 오는 일을 맡는다. 방어조는 말뚝을 빼앗으러 오는 적을 맞받아 나가 싸운다. 말뚝 사수조는 말뚝을 끝까지 지키는 일을 맡는다.

련락병은 적이 몇 사람 죽고 자기 편이 몇 사람 죽었다는 것을 제때제때에 알아다가 군장에게 보고하며 군장의 지시를 병사들에게 알려 준다.

노는 방법:

매개 동무들은 패쪽 하나씩을 가지고 군장의 지시에 따라 적이 차지하고 있는 산 고지를 따라 공격한다.

공격하는 도중에 적과 맞서게 되면 서로 자기 패쪽을 내댄다. 이 때 이기는 패쪽을 가진 사람은 지는 사람의 패쪽을 빼앗는다. 패쪽을 빼앗긴 사람은 죽은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공격하면서 먼저 산 고지에 있는 적 참모부를 공격하여 말뚝을 빼앗

구분 / 패쪽	비행기	땅크	포	고사포	기관총	수류탄	총	패쪽만드는수
		○	○	×	○	○	○	5
	×		×	○	○	×	○	5
	×	○		○	○	○	○	5
	○	×	×		○	○	○	7
	×	×	×	×		○	○	6
	×	○	○	○	○		×	6
	×	×	×	×	×	○		6

○—이길 수 있는 표식. ×—지는 표식.

는 편이 이긴다.

먼저 말뚝을 빼앗는 편은 《만세》를 용감하게 부른다.

주의할 점:

① 패쪽을 서로 보일 때 진 동무는 스스로 패쪽을 내주어야 한다.

② 말뚝은 반드시 참모 기지에 뚜렷이 보이게 꽂아 놓아야 한다.

△ 산야 횡단 경기

이 경기는 배낭과 물통을 지고 정해 놓은 지점을 따라 누가 빨리 돌아 오는가 하는 놀음입니다.

장소는 수풀이 우거진 산 속, 벼랑, 골짜기, 자갈밭, 언덕 등의 장애물이 많은 곳을 정한다. 횡단 거리는 700~1,000 m로 하면 좋다.

이 경기는 반 또는 분단 별 경쟁으로 할 수 있다.

준비할 것은 매개 동무들이 종이 한 장과 연필을 준비한다.

놀음을 시작하기 전에 심판원 2 명과 적당한 인원의 대기 성원을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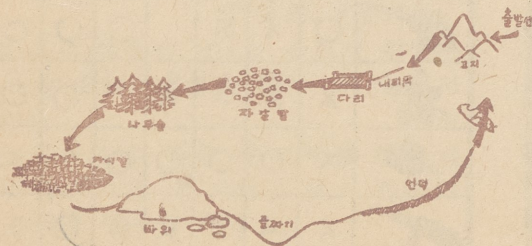
분단 별 경쟁을 할 때에는 심판원과 대기 성원을 다른 분단 동무들로 정하여야 한다.

노는 방법은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와 함께 빨리 뛰여 정해 놓은 지점을 따라 돌면서 주위에 있는 특별한 물체 (큰 바위, 큰 나무, 꽃 등)를 더 많이 기록하며 목적지까지 빨리 돌아 오는 편이 이긴다.

지정된 장소를 통과할 때에는 암호를 대기 성원에게서 알아 와야 한다.

주의할 점:

주변에 있는 물체를 보지 못 하고 추상적으로 적어 넣으면 안 된다.

반드시 지정된 장소를 따라 돌아 와야 한다.

△ 신호 알아 맞히기

이 놀음은 어느 편이 신호를 더 정확히 알아 맞히는가를 내기한다.

장소는 수풀이 우거지고 잔솔이 많은 낮은 산이 좋다.

이 놀음은 반 별 또는 분단 별 경쟁을 할 수 있다.

준비할 것은 신호 표식과 흰색과 빨간색 수기 한 조를 준비한다. 각자는 종이와 연필을 준비한다.

노는 방법: 신호 책임자 한 명과 10여 명의 신호 표식을 가지는 사람을 정한다.

신호 책임자는 매개 동무들에게 신호 표식을 알려 주어야 한다.

맞은 편 산 고지에는 신호 표식을 가진 동무들이 차지하고 이쪽 산 고지에는 신호 책임자와 경기자들이 차지한다. 신호 표식을 가진 동무들은 경기자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신호 책임자의 수기 신호에 따라 1 분 간격으로 신호 표식을 높이 들었다 놓군 한다. 그 때마다 경기자들은 나타난 표식을 종이에 적는다.

표식명	신호표식	수기신호
비행기		
땅크		
자동차		
보총		
경기관총		
중기		
박격포		
고사포		
적장교		
적정찰병		
적군함		

경기는 준비한 신호 표식들이 모두 2~3 회 출연한 다음 총화한다.

총화에서 제일 정확히 알아 맞힌 편이 이긴다.

물에 들어 가기 전에

장 경 남

수영은 물, 공기, 해'빛 등 세 가지 자연의 힘을 함께 받으면서 운동하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좋은 체육입니다.

올 여름에도 강과 바다'가에서 즐거운 수영으로 우리의 몸을 튼튼히 단련합시다.

이제 수영을 즐기는 동무들에게 물에 들어 가기 전에 지켜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 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물에 뛰여 들면 다리에 쥐가 일어 나거나 혹은 심장 마비, 빈혈증이 일어 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하고 물에 들어 가야 합니다.

준비 운동으로써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동작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슴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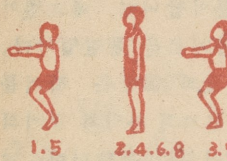
1.5 23.67 4.8

2. 다리 운동

1.5 2.4.6.8 3.7

3. 옆구리 운동

1.3 2468 5.7

4. 온몸 운동

5. 숨쉬기 운동

준비 운동이 끝나면 물에 들어 서기 전에 반드시 심장으로부터 먼 부분 즉 손과 발을 먼저 물에 적시고 머리를 적신 다음 차츰 온 몸을 물에 적신 후에 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준비 운동을 끝내자마자 갑자기 물에 뛰여 들면 심장 마비나 빈혈증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헤염을 할 줄 모르는 소년단원들은 먼저 팔 동작과 발 동작, 숨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팔 동작, 다리 동작, 숨쉬기는 어떻게 할가요?

ㄱ. 팔 동작은 다섯 손'가락을 넓게 벌리고 손'바닥을 약간 안으로 오그리고 배에서 노를 젓는 식으로 손'바닥으로 물을 뒤로 헤칩니다.

처음에는 무릎 우에까지 오는 물에 들어 서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팔 젓는 련습을 합니다.

ㄴ. 발 동작은 얕은 물에 엎디여 무릎을 약간 굽혔다 펴면서 물장구를 칩니다.

이 때 발목은 쭉 펴야 하며 발은 물에서 20~25cm 높이로 물장구를 칩니다. 그런데 발이 물 밖으로 많이 나오거나 너무 물 속 깊이 들어 가는 것은 나쁩니다.

얕은 물에서 발 동작 련습을 한 다음 약간 깊은 물에서 나무통이나 혹은 널판자를 잡고 발 동작을 련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ㄷ. 팔과 다리 동작을 배운 다음에는 숨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은 물이 얕은 곳에 엎디여 머리를 물 속에 박았다가 우로 또는 옆으로 쳐들면서 숨을 깊게 들이 쉬였다가 머리를 다시 물에 잠그면서 숨을 내쉬는 련습을 합니다.

팔, 다리, 숨쉬기 련습이 잘 된 다음에는 구명대를 몸에 끼고 세 동작을 동시에 련습합니다.

수영할 때 주의할 것은

ㄱ. 물의 깊이나 물의 흐름을 잘 알지 못 하는 곳에 마구 뛰여 들지 말며,

ㄴ. 물이 어지럽고 물 밑에 바위가 있는 곳에 들어 가지 말며,

ㄷ. 물이 지나치게 깊은 곳에 들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김 영섭

여름이 왔습니다. 산과 들, 늪, 연못'가와 우리들의 집 둘레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여러 가지 식물들이 날을 따라 늘어 갑니다. 우리가 이 많은 식물들을 그저 스쳐 보고 지나 갈 때에는 거기에서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식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아주 재미 있는 자연의 비밀들을 알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모두 집 둘레나 학교 둘레의 꽃밭, 실습지 등을 찾아 가 봅시다. 맨 먼저 꽃밭으로 가 볼가요?

꽃들의 색갈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습니까. 남색꽃은 도라지, 빨간꽃은 봉선화와 다리야…

아! 그런데 이걸 보세요. 한 다리야 나무에 빨간꽃, 흰꽃 여러 색갈의 꽃이 폈어요. 그러면 꽃은 어떻게 이처럼 여러 가지 고운 색갈을 가졌을가요? 꽃들의 세포에는 색을 나타내는 색소체라는 것이 있답니다. 색소체에는 하얀색을 나타내는 백색체, 록색을 나타내는 엽록체, 붉은색, 노란색, 보라색을 나타내는 잡색체가 있습니다. 꽃에는 이런 색소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다리야나 분꽃처럼 한 나무에 여러 가지 꽃이 피는 것은 그 꽃 안에 백색체, 잡색체들이 여러 가지 비률로 들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꽃은 아름다운 색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도 냅니다. 그럼 향기는 어디서 어떻게 나는 것일가요?

꽃은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를 풍길가요?

자, 모두 꽃 냄새를 맡아 보세요. 향기로운 꽃 냄새는 우리들의 기분을 얼마나 상쾌하게 해 줍니까. 그럼 꽃들은 어떻게 되여 이처럼 향기로운 냄새를 낼 수 있을가요?

많은 꽃들이 향기로운 것은 화밀(꽃의 꿀)을 만드는 물질인 에스텔이라는 것을 증발시키기 때문이랍니다. 에스텔이란 아주 향기로운 물질입니다. 여러 식물들의 꽃들은 향기를 풍기는데 온도의 차이와 공기의 습기에 많이 관계된답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에스텔은 많이 날아 나며 물과 에스텔이 섞인 후 해'빛을 받아도 빨리 날아 나는 성질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온 후 개인 날이면 꽃들이 더 활짝 피고 향기도 더 풍기는 것이랍니다.

이 쪽 화단에는 흰 빛갈을 가진 꽃들이 많이 폈지요. 어떻습니까? 붉은꽃, 노란꽃 속에 있을 때보다 더 향기롭지 않습니까. 더 향기롭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여 흰꽃은 다른 빛갈을 가진 꽃들보다 더 향기로울가요?

많은 식물들은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웅예의 화분 (꽃가루)이 자예에 가 묻어야 한답니다. 이것을 꽃의 수분 작용이라고 하지요. 식물의 수분 작용은 바람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고 고운 꽃을 찾아 다니는 나비나 벌에 의하여 되는 것도 있답니다. 바람의 도움으로 수분 작용을 하는 옥수수, 버드나무, 포뿌라나무꽃 등은 벌이나 나비가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식물들의 꽃은 별로 아름답지 않답니다. 그러나 벌이나 나비의 《도움》으로 수분 작용을 하는 꽃들은 곤충들을 《부르기》 위해서 꽃도 아름다우며 향기도 많이 풍긴답니다.

그러면 벌이나 나비들은 어떤 색갈을 가진 꽃들을 잘 찾아 갈가요?

나비나 벌들이 제일 잘 보는 것은 파란꽃, 노란꽃, 빨간꽃, 흰꽃 등을 차례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흰 꽃에는 곤충들이 제일 적게 찾아 갈 것 같지요?

보세요! 저기 흰꽃들에도 나비나 벌이 얼마나 많이 와 앉았어요.

흰꽃은 다른 꽃들보다 얼른 눈에는 띄우지 않지만 곤충들을 끌어 당기는 비밀을 가지고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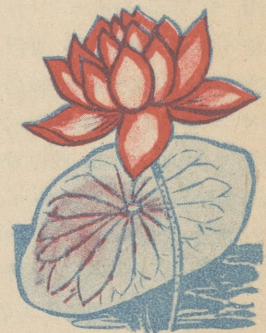
그것은 흰꽃이 다른 색갈의 꽃보다 향기를 더 많이 풍기기 때문이랍니다.

어때요? 꽃들의 세계에도 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아주 흥미 있는 비밀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아침에 폈던 꽃은 낮이 되니까 꽃'잎을 닫는군요. 나팔꽃만 그럴가요? 아니랍니다. 여러 가지 식물들은 꽃 피는 시간과 지는 시간이 다르답니다. 식물의 꽃 피는 시간과 지는 시간이 다른 것을 리용하여 무엇을 만들 수 없을 가요? 생각하여 봅시다.

《꽃시계》를 만든다면

여러 가지 꽃들이 피는 시간과 지는 시간을 잘 조사하여 《꽃시계》를 만들면 아주 흥미 있는 일이지요. 나팔꽃은 이른 아침에 피고 호프는 오전

나팔꽃 — 피는 시간 이른 아침

련꽃 — 피는 시간 아침 4시~5시

민들레 — 피는 시간 6시 쯤

채송화 — 피는 시간 7시 쯤

3시나 4시면 피고 낮이면 시들고 맙니다. 찔레나무, 연꽃, 양귀비꽃은 아침 4시나 5시에 핀답니다. 닭개비, 민들레, 깜두라지등은 6시 쯤 되면 피고 미나리아재비, 채송화 등은 7시 쯤에 핀답니다.

우리가 이런 꽃들이 피는 시간과 지는 시간을 잘 조사하여 알고 있으면 야영이나 등산을 할 때 시계 없이도 시간을 짐작할 수 있답니다.

동무들은 화단에다 이런 식물들을 심어서 《꽃시계》를 만들어 보십시오. 훌륭히 만든 《꽃시계》는 해가 난 날이면 잘 《돌아》 간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상합니다. 피였던 메꽃이 닫겨졌습니다. 무엇 때문일가요? 몇 시간 전만 해도 개였던 날씨가 흐려졌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메꽃 피는 것과 날씨와 그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가요? 그렇습니다. 메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꽃들이 피는 데는 해'빛과 공기 중의 습기가 많이 관계된답니다. 날씨가 흐려서 해'빛이 약하든가 안개가 끼거나 비가 와서 공기 중에 습기가 많으면 꽃 세포들의 역할이 약해지면서 꽃은 활짝 피지 못 한답니다.

이것은 식물들이 바람이나 비'물에 화분이라든가 자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학교나 집 둘레의 꽃밭은 그만 관찰하고 이전 실습지로 찾아 가 봅시다. 실습지에서는 자연의 어떤 비밀을 알아 낼가요?

식물의 《손》

여기는 호박밭입니다. 어떻습니까? 노르스럼한 호박꽃이 아름답지요? 관찰해 봅시다. 줄기가 받침'대에 감기면서 올라 갔지요. 어떻게 감겼어요? 왼 쪽으로부터 오른 쪽으로 돌면서 감겼지요? 한삼덩굴, 인덩 덩굴 등 여러 식물들은 호박처럼 감기면서 자란답니다. 그러나 호박와는 반대로 감기면서 자라는 식물들도 있답니다. 어떤 식물일가요? 나팔꽃, 칡, 메꽃 등은 줄기가 오른 쪽에서부터 왼 쪽으로 감깁니다. 그러나 다래나무를 비롯한 어떤 식물들은 나무에 제멋대로 감기면서 자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번에는 수세미오이밭으로 가 볼가요? 수세미오이가 아주 잘 자랐지요. 호박는 나무에 줄기가 감기면서 자라는데 수세미오이는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다른 점이 없는가를 잘 관찰해 봅시다. 아?! 줄기에 용수철 모양 같이 생긴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권수》라고 합니다. 《권수》는 마치 수세미오이의 《손》과 같답니다. 수세미오이를 비롯한 포도, 완두 등 여러 식물들은 《권수》로 다른 물체를 붙잡으면서 자라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어째서 호박, 포도, 수세미오이 등 여러 식물들은 줄기 혹은 《권수》가 나무나 바위 등에 감기면서 자랄가요? 이런 식물들의 줄기는 저절로 꿋꿋이 서서 자랄 수 없답니다. 그러므로 비와 바람을 이겨 내며 큰 나무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해'빛을 받기 위해서 나무나 바위 등에 감기면서 자라는 것이랍니다.

다음에는 《꼬마 과수원》으로 가 볼가요?

《의좋은》 나무'잎

먼저 식물의 잎 모양부터 관찰해 볼가요?

식물들의 잎 모양은 서로 다르답니다. 바늘 모양 같은 잎, 계란 모양 같은 잎, 사람의 심장 모양 같은 잎, 부채 모양 같은 잎 등 여러 가지랍니다. 정말 식물의 잎 모양이 여러 가지이지요.

모두들 가지에 붙어 있는 잎들을 잘 살펴 봅시다.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등은 잎이 서로 엇바뀌여 붙어 있지요. 저기 쑥을 보십시오. 가지 우로 올라 갈수록 잎은 작고 맨 끝에 붙어 있는 잎은 잎꼭지도 없지요. 이 외에도 꿀풀, 룡담 등 여러 식물들은 줄기에 잎이 서로 마주 붙어 있으며 류선화, 꼭두선이 등은 잎이 한 마디에 3 개 이상 둥글게 붙어 있답니다.

식물의 잎들이 이처럼 《의좋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모두 아래 잎을 그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만약 잎들이 제멋 대로 붙어서 그늘을 지운다면 어떻게 될가요? 식물은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 물질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영양 물질은 잎에서 만든답니다. 잎에는 록색을 나타내는 엽록체라는 것이 있는데 엽록체들은 해'빛을 받아 여러 가지 작용을 하면서 영양 물질이 전분을 만든답니다. 이것을 광합성 작용이라 합니다.

이 번에는 어디로 가 볼가요. 학교의 온실로 가 봅시다.

잎이 변하여 자기를 보호하는 식물

보십시오. 아름답게 핀 꽃들과 묘하게 생긴 선인장들이 많지요. 그런데 선인장은 아무리 보아도 잎이 있는 것 같지 않지요?

그러면 선인장은 어떤 식물일가요? 선인장은 원래 더운 지방의 나라인 멕시코 사막 지대에서 사는 식물이랍니다. 사막 지대에서는 일 년 중 비가 오는 날이 며칠 밖에 없기 때문에 몹시 덥고 가문답니다.

그러므로 식물들은 마음껏 물을 《먹을》래야 《먹을》 수 없답니다. 이리하여 선인장은 물을 적게 증발시키기 위해 잎은 없어져 가시로 되고 줄기가 잎을 대신하여 영양 물질을 만드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왜 잎이 변하여 가시가 되였을가요.

사막 지대에는 다른 식물들이란 거의 볼 수가 없답니다.

동물은 있지만 적게 살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선인장에 눈이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인장은 동물의 피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잎을 가시로 만들었답니다.

선인장 외에도 잎이 변하여 가시로 된 식물은 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하여 여러 식물이 있답니다.

줄기가 변하여 가시가 된 식물도 있답니다. 해당화, 찔레나무, 돌'배나무 등 여러 식물들이 그렇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오늘 학교와 집 둘레의 꽃발과 실습지들을 돌아 보면서 자연의 많은 비밀을 알았지요. 그러나 자연에는 아직도 많은 비밀이 남아 있답니다.

동무들은 학교에 오갈 때, 등산과 야영을 갔을 때 항상 자기 주위에 있는 자연의 비밀을 찾아 내는 습성을 키우시오.

동화만화
(제1회)
대담한 장충이
글 조범천 그림 원광수

앗! 승냥이 부대가 나타났다.
감시초소
1.

2.

땡
땡
땡
감시초소
3

땡 땡 땡
비상 소집 종이다. 원쑤놈들이 또 온 게로구나 빨리 가 봐야지.
4.

5.

승냥이 부대가 또 기여 들고 있다. 빨리 가서 물리쳐라!
6.

무기 창고에 가서 총을 가지고 나가자
7.

무기창고
너굴아 빨리 창고 문을 열라. 원쑤놈들이 쳐 들어오고 있어
8.

문아! 문아! 빨리 빨리 열려라!

기창고
10.

11.

놈들이 벌써 저기 오는구나.
12.

땅
13.

14.

이게 무슨 꼴이람.
난 이젠 다시는 안 갈 테다.
아가리를 닥쳐!
15

놈들한테 지고 왔으니 무슨 낯으로 대장님을 뵈운담.
16.

대장실
17.

대장님! 이번에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 왔습니다
또 지고 쫓겨 왔단 말이야 이 바보들아!
18.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슴이네 동산을 빼앗고 그놈들을 우리의 노예로 만들어야 한다.
그놈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놈들의 무기창고 열쇠를 훔쳐 오 다음 쳐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19.

어떤 방법으로 열쇠를 훔친단 말이냐?
까욱이에게 임무를 주어 그놈들 속으로 들여 보내 봅시다
좋아!

까욱이를 보내 겠습니다

참모장이 나를 왜 찾는 것일가 ?

너를 부른것은 다름이 아니다. 몸차림을 변장하고 사슴이네 동산에 들어가서 놈들의 무기창고 열쇠를 훔쳐 오너라.
참모장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무기창고 열쇠를 둔 곳을 알아 낼가? 옳지, 저기 뻐꾹이가 있구나. 그놈에게 살작...
여기다 불을 놓으면 위리가 들어와서 불은 질른줄 알고 종을 칠지몰라

뻐꾹아! 아까 승냥이 부대가 또 왔댔다. 그놈들이 겨워 죽겠어 까욱 — 까욱 —
그런데 왜 비상 종을 치지 않았을가. 뻐꾹 뻐꾹

우리가 쳐 들어오면 비상 종을 친다지. 그럼 그 종을 치면... 종 있는데로 가 봐야 겠다

저 놈이 종을 지키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

앗!! 저게 웬 불이야. 놈들이 온게로구나.

땡 땡 땡

승냥이 부대가 또 왔는가부지. 그놈들을 그저 에익!
땡 땡 땡

저놈들이 불까지 놓구 야단 치누나 빨리 가 무기를 들고 싸워야나 가자.

나도 살작 끼여 들어 놈들의 행동을 살펴야 겠다.

문아! 문아! 빨리 빨리 열려라
아하! 인젠 알았다. 무기 창고 열쇠를 너구리가 가지고 있구나. 됐어

어떻게 해야 저놈의 열쇠를 훔쳐 낼수 있을가

무전을 쳐서 여우를 불러다 협동 작전을 해야 겠다.
참모장 앞.
까욱이

(동시)

삼지연의 물

혁명의 전적지를
다녀 오신 선생님
책상 우에 물'병을
척 내놓으시겠지.

무엇일가
우리 서로 마주 보는데
삼지연 물이라고
알리여 주시네.

아, 삼지연 물! 삼지연 물!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원들
원수 치러 조국 땅을 건너 오셨을 때
이 물 마시고 새 힘을 얻었다지.

그 분들이 마시고 일제 원수 쳐부신 물,
삼지연 물을
동무들은 한 모금씩 마시여 보네
한 모금 꿀꺽 나도 마시였더니

투사들의 혁명 정신
온 몸에 흘러 든듯
새 힘이 솟누나.

개성 지구 판문군 평화 농업 학교
중등반 3 학년 송 승섭

(동시)

풀 죽이는 약

누가 누가 만들었나
풀 죽이는 약
화학 공장 아저씨들
만들어 보내 왔지.

남김 없이 모조리
풀 다 죽이면
토끼, 염소, 송아지
무얼 먹일가?

그건 걱정 말아라
풀 죽이는 약은
분무기로 휘휘
논밭에만 뿌린단다.

한 이랑, 두 이랑 뿌려 나가면
멈치 없는 풀들은
쓰러져 죽고
밭벼와 논'벼는 춤을 춘대요.

호미로 농사 짓던 지난날에는
얼마나 많은 땀 흘리였을가
아버지, 어머니들 열흘 매던 밭을요
지금은 약으로 단숨에 매네.

정말 정말 좋구나 화학의 나라,
약으로 농사 짓는 우리 나라 좋은 나라,
곡식들은 싱싱 자라 해마다 풍년 들고
사람들은 해마다 젊어만 가요.

황해 북도 신계군 구락 중학교
단 제 7 분단 송 정숙

(동시)

북청 사과

산에 산에 층층 계단
사과나무 과수 동산
우리 고장 북청 사과
가지마다 꽃이 폈네.

아빠, 엄마, 누나, 형님
사과나무 가지 따기

가위 쥐고 잘깍잘깍
신이 나서 일하지요.

작년 왔던 외할머님
북청 사과 맛 좋다고
칭찬 많이 하시더니
올해에도 또 오신대요.

우리 나라 상점마다 북청 사과 많고요
바다 건너 외국에 가도
북청 사과 맛 좋다고 칭찬을 해요.
우리 고장 북청 사과 제일이래요.

올해에도 북청 사과
산과 들에 주렁주렁
산'골 벌방 곳곳에 보내 준대요.
온 나라 사람들 기쁘게 한대요.

함남도 북청군 청홍 중학교
3 학년 전 순옥

꽃병의 꽃을 오래 피게 하는 법

꽃병의 꽃은 흔히 오래 가지 못하고 곧 시듭니다. 그러나 꽃병의 꽃을 오래 펴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꽃병의 꽃이 오래 펴 있게 할가요? 모두 실험해 봅시다.

▲ 홍초, 다리야, 코스모스, 아스파라가스 등은 병에 꽂기 전에 자른 곳을 1~3 분 동안 알콜이나 소주에 담그었다 내면 오래 피여 있습니다.

▲ 꽃창포, 분꽃, 다리야 등은 자른 곳에 소금을 약간 발라 주면 오래 핍니다.

▲ 모란, 홍초, 국화, 다리야, 작약, 부용 등은 자른 곳을 불에 잠간 태우면 오래 핍니다.

▲ 다리야, 구라지오라스, 정향나무 등은 자른 매디에서 약 3 센치 메터 가량 껍질을 벗겨서 뜨거운물에 2~3 초 동안 담그어 두었다가 곧 병에 꽂으면 꽃이 오래 피여 있습니다.

(동화)

조뱅이와 바랭이

윤 인 균

살랑살랑 가을 바람이 부는 어느 날이였어요. 개울'가에서 살던 민들레씨와 조뱅이씨가 같이 바람을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자요.》

이렇게 서로 속삭이면서 말이예요.

하르르한 날개들을 펼치고 푸른 하늘로 훨훨 날아 갔습니다.

《얘 조뱅아, 저기 좀 봐. 참 아름답구나!》

민들레가 이렇게 속삭이자

《그래…더 자꾸 가 보자. 먹을 것도 많고 우리가 독판 치며 살 데루 말야.》하고 조뱅이는 숨이 차서 할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느덧 푸른 언덕을 넘어 넓은 들판우로 날아 가고 있었어요.

《저기가 어때?》 푸른 물이 졸졸졸 노래하며 흘러 가는 개울'둑을 가리켰습니다.

《풀이라군 한 포기도 없나보구나…》

《새로 만든 관개 수로'둑일 거다. 애들도 다니구…좋겠어. 하여튼 좀 앉아 쉬여 가자.》

민들레가 이렇게 말하자 조뱅이도 숨이 차선지 하르르한 《락하산》을 갸우뚱 하더니 둑으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시원하다. 그런데 여긴 메마른 땅인가부다. 그러기에 아무도 안 살지…》조뱅이가 빨간 진흙둑을 들여다 보며 종알댔어요.

《언제 와 살았겠니, 금방 생긴 둑인데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푸르게 하는 것이 좋겠다야.》하고 말한 민들레는 이 곳이 꼭 마음에 들었어요.

《나비도 많이 찾아 줄 게구 학교 쪽으로 향한 길이니 아이들의 노래 소리도 자주 듣구 좋아…》

그러나 조뱅이는 《아냐, 더 날아 가 보자. 여긴 틀렸다. 먹을 량식도 누가 주지 않겠구.》 하였습니다.

민들레는 하르르한 머리카락을 빗어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얜, 언제 우리한테 누가 량식을 주던? 그거야 사람들이 곡식을 나무에게 주는 비룐 걸 우리가 훔쳐 먹었지 뭐.》

《그래두 가만히 앉아서 배를 뚜드리며 먹으니. 그게 얼마나 좋아.》조뱅이는 그게 응당한 것처럼 말했어요.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좋은 일을 해야지. 그렇게 나쁜 일을 하러 가자는 거냐?》

조뱅이는 발끈 화를 내였어요.

《그래 내가 나쁘단 말이냐? 넌 뿌리가 약해 거기 가서 이겨 낼 수가 없으니깐 그렇지?》

조뱅이는 한 마디 내배앝고는 날개를 펴더니 쌩—바람을 타고 날아 가 버렸습니다.

《조뱅아—조뱅아!》하고 민들레가 불렀지만 돌아도 안 봤어요.

조뱅이는 다시 또 개울을 셋이나 건넜습니다. 정말 먹을 것도 많고 독판치며 살 수 있는 곳으로 찾아 왔어요.

그 곳은 바랭이네가 살고 있는 목화밭이였답니다. 조뱅이는 바랭이와 의가 맞았어요.

목화나무가 잘 자라라고 사람들이 주는 거름을 훔쳐내는 바랭이거든요.

바랭이는 목화나무 줄기 밑으로 살살 기여 다니면서 비료를 도적질했고 조뱅이는 뾰족뾰족 가시 난 잎으로 목화나무를 헤집고 거름을 빼앗아 먹었답니다.

해'빛이 쨍쨍한 어느 날, 아주 흥이 난 조뱅이와 바랭이는 너울너울 춤을 추며 노래까지 불렀어요. 바랭이가 먼저 노래 부르자 이 번에는 조뱅이가 또 혝혝 쉰 목소리로 받아 넘겼어요.

—암만 암만 사람들 날 미워해
줄기 줄기 열 두 번 찍어 보래요.
나는요 쌍 줄기로 퍼져나
가시 돋힌 잎에는 기름이 지네—

이 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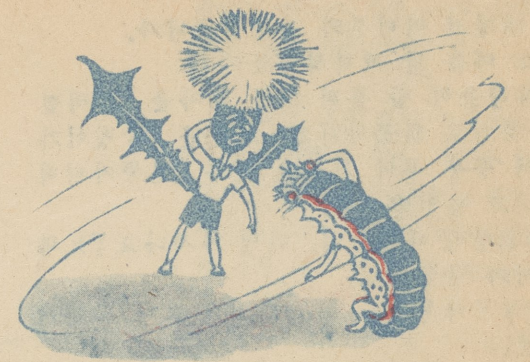
《조뱅아—조—뱅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너 싹뚜기 아니냐? 우리 노래 소리를 듣고 오니? 난 아주 좋아!》

조뱅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겁이 잔뜩 나서 눈언저리가 벌개진 싹뚜기는 《너흰 참 한심해, 어서 달아 나자!》고 했습니다.

《넌 왜 그러냐? 아유—참 패 서두네.》

바랭이는 새새새 웃기까지 했답니다.

《야단났다. 곡식나무를 해하는 우리나

너희 같은 도적 잡초는 몽땅 박살난다.》

《넌 정말 겁쟁이다. 얘, 갈 테면 너나 도망쳐. 이렇게 먹을 걸 많이 두고 가다니.》하고 조뱅이가 말했어요.

《몽땅 멸살시킨다는데두?》 싹뚜기의 이마에는 땀이 뿌지지 내돋았습니다.

《듣기'싫어, 넌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 몇 백 년을 두고 사람들은 나를 미워했지만 나를 당해내진 못 했거든, 알지? 머리를 찍어 보래, 그럼 둘, 셋, 넷…자꾸 늘어 날테니…》

기름이 번지르 살진 잎을 흔들거리며 조뱅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령리한 바랭이는(가만, 겁이 없던 싹뚜기가 저렇게 겁낼 적엔…)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 어떻게 한다든?》하고 물었어요.

이마의 땀을 쓱 훔치면서 싹뚜기가 말했습니다.

《이 번엔 호미나 손으로가 아니구…》

《응, 그 뜨락또르란 게로구나. 그것도 견디여 배기는 수가 있어.》 하고 조뱅이는 싹뚜기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막아 버렸습니다.

《체, 아—니야. 안개 같은 건데…그걸 먹으면 곡식나무만 살구 우리 같은 건 몽땅 즉사한다는데 뭘…》

그러나 조뱅이는 또 자신 있게 말했어요.

《글쎄 념려 말아 겁쟁이야. 그걸 먹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좋을 대로 해.. 난 혼자서라도 뛰겠다. 그래 숨도 안 쉬는 재간이 있다구?》

싹뚜기는 저 혼자서 와삭와삭 하는 소리

를 내면서 어디론가 도망쳤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녘이였어요.

사람들이 땀 흘려 가꾼 감자를 도적질해 먹기로 일등이라고 소문난 굼벵이가 눈이 퉁퉁 부어 가지고 겨우 절뚝거리며 지나고 있었습니다.

《굼벵이 아주버님, 어딜 가시나요?》 바랭이가 물었어요.

《누구냐? 응—목소리를 들으니 바랭이로군.》

어째서인지 굼벵이의 목소리는 맥이 없었어요.

《어서 피—하게나. 더 도적질 할 생각일랑 아—예 말구…내 꼴을 좀 봐…》 하더니 어제 싹뚜기가 하던 말과 똑 같은 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랭이는 가슴이 철렁해져 온 몸이 바들바들 떨리기까지 했어요.

《그럼 곡식나무가 아닌 민들레랑도 몽땅 죽나요?》

조뱅이는 후들후들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말했지요.

《아—니. 어제 오다가 보니까 민들레는 수로'둑에서 꽃나비랑 춤만 추데. 임자네두 아예 도적질일랑 말구 수로'둑이나 산언덕에 가서 뿌리를 든든히 박고 홍수를 막아 주는 일이라도 하는 게 좋을 걸세.》

굼벵이는 몹시 시간이 바쁜듯 꿈지럭거리면서 다시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야 조뱅아, 우리 그럼 이제부터라도 그런 데로 피하는 게 어때?》

바랭이의 말에 조뱅이는 《쳇, 거기 가면 일을 해야 먹지. 그러니깐 굼벵이 아주버니랑 싹뚜기랑이 가는 데로 우리도 가 보자. 또 쉽게 놀고 먹을 데가 있을 게다.》 하며 바랭이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랭이는 그런 곳이 있을상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랭이는 혼자서 수로'둑을 찾아 떠났고 조뱅이는 굼벵이를 따라 떠났습니다.

이틀이 지난 저녁이였어요.

땀을 흘리면서 쉬고 있던 조뱅이는 할딱거리며 되돌아 오는 싹뚜기를 또 만났습니다.

《아유—가지도 말아요. 그 곳에도 그 무슨 살충제라나, 살초제라나 하는 것이…》

싹뚜기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천 년을 두고 곡식을 해치기만 하면서 살아 온 이 놈들은 올 데 갈 데 없이 되였습니다.

불현듯 조뱅이는 바랭이를 따라 갈 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민들레의 말을 듣지 않은 것도 한스러웠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안개가 거칠 무렵 조뱅이들이 있는 밭에는 안개도 비료도 아닌 그 무엇이 뽀얗게 들씌워졌습니다.

어디서인가 민들레가 부르는 노래 소리가 멀리 멀리에서부터 울려 왔습니다. 그 노래 소리 가운데는 바랭이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답니다.

(숲 속에서의 놀음)

기'발 빼앗기 놀음

이 놀음은 인민반 3 학년 이상 중등반 1 학년 소년단원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흥미 있는 놀음입니다.

놀음은 같은 수의 두 편으로 나누어 합니다.

△ **준비할 것** : 기'발 두 개와 놀음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놀음터는 잔 소나무가 많은 곳, 또는 풀이 무릎까지 치는 풀밭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놀음터의 크기는 노는 인원수에 따라 적당히 할 수 있는데 대체로 20~30 명의 인원일 때에는 길이 30~50 메터, 너비 20~30 메터의 놀음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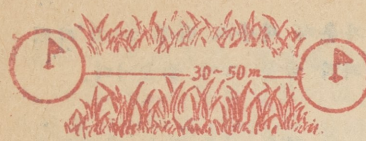
놀음터에는 두 편의 근거지를 정합니다. 근거지는 기'발을 가운데 세우고 반경 4~6 메터 되게 금을 그어 놓습니다.

△ **노는 방법**

두 편은 서로 자기 근거지에 모여 의논해서 먼저 근거지를 지킬 《병사》 3~5 명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적의 기'발을 빼앗는 《병사》들입니다.

《병사》들은 놀음을 시작하기 전에 풀로 위장을 합니다. (위장은 그 지대에 맞게 한다.)

놀음 《시작》 신호가 나면 모두 적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엎디여 《적》을 살피면서 《적 근거지》를 향하여 기여 갑니다.

이 때 《적》을 발견하면 ○○○ 동무 《땅》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불리운 사람은 죽은 것으로 됩니

다. 죽은 사람은 놀음에 지장이 없도록 놀이터 밖으로 빨리 나가야 합니다.

근거지 안에 발을 들여 놓은 《적》은 쓰지 못 합니다. 그 때는 근거지를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적》과 육박전을 합니다. 육박전은 《적》을 근거지 밖으로 밀쳐 내는 것입니다. 육박전에서 근거지 밖으로 밀쳐 나간 《적》은 죽은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육박전을 하다가도 적이 기'발을 뽑는데 성공하면 다시 밀쳐 내지 못 합니다.

이렇게 하여 먼저 《적》의 기'발을 빼앗는 편이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놀음에서 주의할 것은:

숲에서 놀기 때문에 뱀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나무에 살이 찢기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육박전을 할 때 너무 지나치게 밀쳐 상처를 입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등반)

영숙이네 반실에 꼭 같은 책상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스텐드 하나를 가운데 놓고 빙 둘러 앉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전등'빛이 모두 왼 쪽으로 비치도록 앉으려면 책상, 전기 스텐드, 앉을 자리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가요?

(인민반)

공작 시간에 영철이는 다음 모양의 색종이를 두 번 가위질 하여 오려 낸 것을 정사각형이 되게 맞추었습니다. 어떻게 오려서 어떻게 맞추었을가요?

4호 현상 문제 해답

인민반 (개구리)
중등반 (고래)

4호 현상 문제 당선자

평남도 대동군 고산 중학교 김 명순
평남도 남포시 덕애 중학교 김 화순
평양시 형제산 구역 사간 중학교 문 명자
함북 회령군 오산 중학교 김 치현
평남도 양덕군 평선 중학교 위 영득
평남도 성천군 장림 중학교 오 윤택
강원도 원산시 적천 중학교 조 복희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 중학교 림 승교
평북도 박천군 송도 중학교 한 정선
평북도 룡천군 동하 인민 학교 김 영민
평남도 성천군 덕흥 인민 학교 황 원찬
강원도 원산시 부운 중학교 김 정숙
황북도 신평군 도음 중학교 조 승일

감나무

꾀돌이네 집 뜰 안에 감나무 하나가 있었지요. 그 감나무 가지는 싱싱 자라서 울타리를 넘어 옆집 량반네 집 처마 밑에까지 뻗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감이 익자 렴치 없는 량반은 자기네 집 처마 밑에 드리운 감을 몽땅 따 먹었답니다.

그래서 꾀돌이는 량반네 집엘 찾아 가서 창문을 열고 주먹을 쑥 들여 밀었어요.

그랬더니 량반이 깜짝 놀래서 《이 게 웬 놈이냐?》

《네, 접니다. 그런데 량반님, 이 주먹이 뉘 주먹이죠?》

《에이 이 놈, 거야 네 주먹이지 누구의 주먹이겠니?》

《그런데 량반은 우리 감나무의 감은 어째 자꾸 따 잡수시우, 예?

《뭐 뭐? 어이휴——》

잡지명 소년단 제 6 호 (류계 176호)

발행소 조선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출판사
편집 위원회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5월 21일 발행 1964년 6월 1일

ㄱ—430264 값 35 전

공작실

배 만들기

배 만들기는 중등반 소년단원들이 여름 한철 흔히 할 수 있는 공작입니다.

△준비 할것: 널판자 양철판 (통조림통 편 것) 고무줄, 구슬알 처럼 생긴 알.

△만드는 방법: 그림 1과 같이 두께 3 cm 이상 되는 널판자를 가지고 배처럼 깎는다. 직경 5 cm 되는 통나무를 절반 짜개서 만들 수도 있다. 다음 키 (그림 2)를 만드는 것도 나무나 양철판으로 그림의 규격 대로 만든다.

바람개비 (그림 3)는 양철판으로 만드는데 직경 3.5 cm 되는 둥근 판을 그린 다음 그것을 세개로 나누어 날개를 딴다. 그 다음 바람개비 가운데에 못으로 끝을 까부린 (그림 4) 갈구리를 끼우고 납을 녹여 놀지 않도록 부친다.

다음 짜개못 (그림 5)은 쇠줄로 구부려 만든다. 그리고 못 (그림 6)은 그에 알맞는 것을 준비한다.

다음은 고무줄을 길이 14 cm 되도록 짜르고 량끝을 맺는다.

△맞추는 방법: 본체의 그림 순서 대로 맞추면 된다. 구슬알 (그림 8)은(그림 4)의 갈구리. 머리 부분에 끼운다.

△배를 물에 띄우는 방법: 바람개비를 돌리면 고무줄이 감기면서 조인다. 이 때에 물 우에 놓으면 배는 앞으로 나간다.

정기 간행물
번호 제13454호

과학 환상 만화

땅속의 보물을 찾아서 (제8회)

글 안 형룡　　그림 안 창수

32

(32) 겨우 차에 오른 그들은 멀지 않는 곳에서 화산이 일어 나고 있음을 알았다.

화산 폭발을 관찰 해 보자는 창남의 의견에 모두가 찬성했다. 화산은 바다에서 일어 나고 있었다. 바다'물은 막 끓어 번지고 광광 요란한 소리를 낼 때마다 돌물과 까스가 뿜어져 나왔다.

33

(33) 바다 밑에서 화산이 일어 는 때에 바다 우에는 어떤 현 날 것인가를 알고 싶은 명희는 존의 스위'치를 넣었다. 영사막 람이 살지 않는 큰 섬이 나타 같은 파도가 온 섬을 삼킬드시 고 있었다. 파도는 아름드리나 나무들의 뿌리를 사정없이 뽑 있었다.

(34) 방사성 물질(자기 절로 열을 내는 원소)에 의하여 돌들이 녹은 것이 약한 틈새로 터져 나오는 것이 화산이라는 것을 아는 그들은 여기서 얼마 멀지 않는 곳에 암장(돌이 녹은 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암장을 관찰하기 위하여 14,000 메터의 깊이로 내려갔다.

《창남아! 암장에 있는 까스의 압력으로 발전소를 만드는게 어때.》

명희가 말하자 창남이와 관식이는 찬성했다. 그들은 러를 막고 차에서 발전기를 내렸다.

34

(35) 창남이와 관식이가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이에 명희는 지상에 자기들이 지금 발전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암장을 관찰했다. 암장의 크기는 굉장했다. 길이가 5km, 두께가 2km나 되였다.

온도는 2000 도에 기압은 100 기박이나 되였다.

발전기를 설치한 그들은 초음파의 힘으로 암장에서 까스가 나 올 구멍을 뚫기 시작하였다.

35

(36) 꼬마 탐새대들이 암장의 까스를 리용하여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무전을 받은 지상에서는 차가 있는 곳까지 전기'줄을 내려 보낼 구멍을 뚫었다.

몇 시간 후 전기'줄이 내려 왔다. 창남이는 발전기에 전기'줄을 잇고 스위'치를 넣었다. 데레비죤 영사막에는 선생님들과 동무들 그리고 여러 과학자 아저씨들의 기쁨에 찬 얼굴들이 보였다.

(다음 호에 계속)

36